

# 2019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교육부 월간지 『행복한 교육』에서 2019년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관심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응모자격**
- ✔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
  - ✔ 만18세 이상의 교원, 교육관계자, 학부모, 대학(원)생 등
  - ✔ 매월 1건 이상의 참신한 기사를 취재·작성할 수 있는 성실함을 갖춘 사람
  -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교육가족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
- ※ 기존 명예기자는 2018년 활동해온 과정을 평가하여 선발함.
- 모집인원**
- ✔ 〇〇명
- 응모 기한**
- ✔ 2019년 1월 14일(월) ~ 2019년 1월 30일(수)
- 원서 접수**
-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응모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송부(educize21@gmail.com)
  - ※ 명예기자 지원서, 취재 기획서 각 1부(단, 기존 명예기자는 소정 양식의 경력지원서 1부만 제출)
  - ✔ 이메일 제목에 '명예기자 지원 〇〇' 필히 기재
- 결과 발표**
- ✔ 2019년 2월 중순(웹진에 공고 / 합격자 개별 연락)
- 문의**
- ✔ 『행복한 교육』 편집실 02-2271-0992

#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18년 12월

특별기획 \_ 교육부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Vol. 437. 2018. 12.  
특별기획 \_ 교육부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지금! 혁신교육 \_ 행복나눔학교 '송남초등학교'

# CONTENTS

December 2018 Vol. 437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02 특별기획

교육부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 04 2018년 교육부가 걸어온 길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출발선부터 평등한 교육을 향해

## 10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 62 교육 썰전

학교폭력 제도 개선



## 현장이야기

- 22 **지금! 혁신교육** 충청남도교육청 행복나눔학교 '송남초등학교' 공유의 리더십, 교육가족을 춤추게 한다
- 26 **삶과 교육** 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
- 30 **이런 수업 어때요** 김점선 교사의 공지락 프로젝트
- 34 **아해! 진로체험** 대전괴정고등학교 메이커교육
- 38 **명예기자 리포트** 세계시민의 길, 공정무역으로 배우다 外

## 정책이야기

- 44 **이슈**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
- 48 **초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교육의 만남 : 에듀테크
- 52 **세계의 교육 변화** 2018 한-OECD 국제 세미나
- 56 **꽃 피는 교육자치** 전남/충남



## 정보이야기

- 58 **대학교육** 4차 산업혁명과 고등교육의 질 향상
- 62 **교육 썰전** 학교폭력 제도 개선
- 62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 64 **교육과 예방** 그리고 회복이 선순환하는 학교폭력 제도
- 66 **학급운영노트** 학년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 68 **아이의 다락방** 세 아이의 성(性)고민
- 70 **이야기 인문학** 마무리의 자세와 시작을 맞는 자세
- 72 **일상의 쉼표** 꿈꾸는 동화, 빛이 노래하는 포천
- 76 **뉴스브리핑**
- 79 **행복 게시판**

## 표지이야기

아산과 평택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김동식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바늘 장군 김동식'을 촬영 중인 송남초등학교(교장 윤희정) 6학년 아이들. 온채워기 활동 후 역사의 한 장면을 대본으로 완성하고 각자 감독, 분장, 소품, 배우 등의 역할을 정해 촬영에 임하고 있다. 학교에서 걸어 5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외암 민속마을은 영화촬영의 최적의 장소. 각자 역할에 맞춰 분장을 하고 마지막 촬영을 위해 외암 민속마을에 모였다. 지금부터 레디~ 액션!

# 교육부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 2018년 교육부가 걸어온 길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출발선부터 평등한 교육을 향해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본격 시동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평등한 출발선 보장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성장경로를 위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대학이 지식창출과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감하며 주요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내년도의 교육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교육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합니다.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지이며,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올해 교육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2019년 교육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합니다.





## 2018년 교육부가 걸어온 길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출발선부터 평등한 교육을 향해



###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2018년, 올 한해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론이 크게 대두된 해이다.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단초가 되었고, 이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요구와 더불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당·정·청,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10월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 497개 학급을 증설하였으며, 2019년에 1,080개, '20년 500개, '21년 500개로 점차 확대하여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등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 지원(2조 586억)하였으며,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인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17년 41,200원 → '18년 116,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17년 95,300원 → '18년 162,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대학교의 경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절반 이상의 수혜를 받는 학생이 '17년 58만 명(90% 이하) → '18년 69만 명(120% 이하)로 늘었으며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기숙사 확충(실입주 기준 9,927명) 등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입학금,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먼저, 교육부는 학교·지자체 협력을 토대로 학교 안팎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18년 초등돌봄교실 26만 1천 명)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교 내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아울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하는 등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학생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내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석면·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제거(공기정화장치 설치교실 70% 달성)와 내진성능 조기 확보(지진위험지역 내 진성능 10년 단축('34→'24)) 등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 오고 있다.



###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대학혁신 기반 마련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약 1.5조 원 규모로 사업별로 지원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양적 조정 중심의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고, 재정지원사업을 5개 특수목적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통합하여 일반재정 지원방식으로 개편('18.3)하였다.

### 국민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

특히 올해에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을 비롯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상),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18.하)은 정책숙려제를 활용한 정책결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단독 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사회부총리로서 부처간 협업을 제고하고, 정부 공동으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중앙부처(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시·도교육청-지자체가 함께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18.11)을 모색하였으며,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교육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한계

첫째, 학사비리 등으로 교육현장의 신뢰도가 저하된 점이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고교 내신편가, 대학입시, 학사관리 등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교육 분야 신뢰도 크게 훼손되었다. 만성적인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적절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었다는 국민들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둘째,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교육비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적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 산업사회 인력양성 모델과 입시위주의 초·중등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현장 수용성이 부족하였다. 현안 중심 단기 대응 및 중장기적 비전 부재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부 정책은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교육계 참여한 의견대립에 대한 조정 미흡 및 정책 전 단계에서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②



## 한 걸음 더 들여다보는 고교학점제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본격 시동



교육을 둘러싼 문화·시설·기술 등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육은 표준화된 산업사회의 인재상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교육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고교 교육은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수능의 유희리에 의한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강의와 암기 위주의 수업, 한 줄 세우기식의 학생 평가 등으로 학생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추진한 고교체제의 다양화가 서열화된 고교 입시로 이어져 사교육 확대, 초·중학교 교육의 왜곡, 다수 일반고의 학습 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위기를 키운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

임으로의 전환과 고교교육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2018년에는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혁신을 위한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는 노력을 해왔다.

###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로드맵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된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이다.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제도가 설계·운영되며, 세부 운영방식은 학교의 운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위제 상의 단위<sup>1)</sup>를 학점으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 등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요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생의 진로·적성 및 흥미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영역별·단계별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제도 측면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필평가 중심의 상대

평가에서 벗어나, 수업을 통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 평가, 교사별 평가 등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학생의 성취수준을 판단하여 학점 취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기준 및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졸업제도 측면에서는,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한 진급, 졸업을 넘어서 학생의 실제 과목 이수 및 성취 수준에 따라 진급, 졸업하는 방식으로 기준 재설정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요건과 변화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주체로서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하고, 수업과 평가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습의 질 관리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행 고교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표 1 참조>.

### 고교학점제, 교육 주체와 함께 만들어 갈 길

미국,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단계에서도 학점제를 운영 중이다. 학생의 적성과 특기, 과목 이수 경력, 진학·진로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목 수강·이수가 가능하도록 커리큘럼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 있고, 운영

경험도 오래되어, 이들 국가에서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진행되는 학점제 논의는, 제도가 시작된 배경과 기반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의 취지와 시사점, 우리의 교육 현실과 앞으로의 비전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로 발전시키고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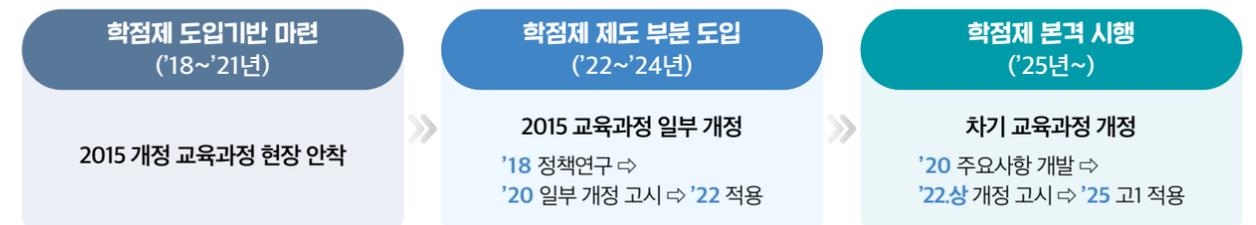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영재학교와 일부 자사고에서 학점제를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일반 학교의 입장에서 학점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과목 개설과 유연한 학사 운영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학급 및 학교 운영 지원 체제와 학교 문화의 변화, 수업과 평가의 개선 및 이를 위한 교원의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 학교·지역 간 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부는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방안을 만들어가며 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8년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 105개교를 지정하여 3년간 운영함으로써 학점제 도입에 따른 단위학교의 필요와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워크숍, 전문가들을 통한 학교 컨설팅, 포럼, 전문가 협의회,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네트워크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연구·선도학교 342개교를 확대 지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가는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저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㉔

[표 1] 고교학점제 추진 로드맵



1)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한다.

## 한 걸음 더 들여다보는 특수교육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학생 스스로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도록 수업을 디자인하여, 조용했던 교실에 활력이 넘친다. 꿈은 스스로 찾아간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여, 손끝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학생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대전맹학교 교사)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2018학년도부터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164교)되고, 자유학년제가 확대(48교) 운영되고 있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개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미래생활역량 강화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특성 및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여 중학교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또는 두 학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도·중복학생을 고려하여 생활기능영역과 연계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수학교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연구학교를(18, 13교) 운영하고 교육 공동체의 공감과 참여 분위기 확산으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이루었다. 학생이 행복한 수업, 교사의 수업 역량, 학부모의 학교 교육 신뢰도 향상 등 한 학기만으로 학교

의 변화와 학생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학년도부터는 자유학년제 및 연계학기 운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학생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개별 맞춤형 교실 수업은 학생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학생의 관심 영역이나 흥미, 학습 양식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은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평가

1. 아이소리 축제, '나는 행위 무용가' (한국선진학교)
2. 잡지를 이용해 DSLR 카메라로 사진촬영, '모델 치마에 자연을 담다' (한국선진학교)
3. 진로체험 페스티벌, '나만의 마스크 만들기' (한국선진학교)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의 고민과 열정으로 더욱 풍부해진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수업 설계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수업 참여가 확대되고, 바리스타·조향사·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수업의 만족도 및 효과는 매우 높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권역별 워크숍·성과보고회, 교사 연구회, 직무연수(원격·집합),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등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 올해 특수학교에 예술·체육활동, 자립생활·직업생활(학생용 워크북, 조작도구),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과정중심 평가(교사용 자료) 프로그램 및 자료를 보급하였다.

###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개별 맞춤형 진로설계를 통해 학생의 지역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진로탐색활동 운영이 더욱 강조된다.

교육부는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꿈길' 활용을 활성화 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성·운영으로 맞춤형 체험처를 포함한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대·발굴 등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체험활동 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체험버스 확대(18, 50교)하고 원격영상진로 멘토링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18년 6월 「진로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18년 12월부터 오는 '19년 8월까지 자격연수를 운영한다. 또 '20년까지 특수학교(중·고교과정)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 맞춤형 개별화 교육은 특수교육의 핵심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은 특수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강점과 흥미를 발견하여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간의 특수학교 진로교육을 보다 촘촘히 체계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모든 학생이 꿈을 향해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기대한다. ㉠



##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사교육의 시발점이 되는 한글·수학·영어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 교육을 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19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추진되며,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교육부는 2019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 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들의 우려가 큰 교육 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학교 구성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먼저,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사립대 총장 등은 취업제한 심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

부서 간 벽을 낮추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부서나 직급 상관없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그 일환으로 부총리가 부내 협의회를 통해 젊은 직원들과 정책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계를 만든다.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고,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 근무제(가칭)' 도입을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초·중등 분야 사무와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지속 이관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 양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 제도화 및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가 안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강화한다.

그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

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을 통해 교육비리 관련 현황 및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를 정비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사람 중심 미래교육

#### ① 평등한 출발선 보장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차별 없는 포용적 교육을 구축한다.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 국가가 평등한 교육기회와 기초학력 보장을 책임진다.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 '19년 1,080개 학급 신설한다.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립유치원

#####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일정규모(200명) 이상  
유치원(600여개) 우선 사용

#### 공정한 내신을 위한 학생평가 관리 강화

##### 보안강화, 관련자 처벌규정 명시

보안강화, 관련자 처벌규정 명시  
시험지 유출 처리기준 마련  
상피제도 추진

#### 사립학교 취업 제한

##### 3년 → 6년

교육부 퇴직공무원  
부실 사립대학  
총장 취업제한

사립 초·중등학교 및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취업도 제한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육 내용도 창의성을 발휘시키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특히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한다. 학습 성취수준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최소화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18.12)하며,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 더 궁금하다면 14페이지로 이동

### 2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 혁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 공간,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혁신한다.

획일적인 학교 시설을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 중심 학습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친교·놀이활동 등이 가능한 창의·감성적 생활 공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를 구현한다.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교과(학교장 개설교과, 전문교과)에 한해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간소화 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간다. 연구·선도학교 확대(18.105교 → '19.342교)를 통해 다양

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우선 도입('20)한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예술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더 궁금하다면 18페이지로 이동

### 3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고등교육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2019년 시작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대학 5,688억, 전문대학 2,908억)은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 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환경개선 등 교육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18. 10교 → '19. 20교)한다.

대학의 학술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 학계가 주체가 되어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19.하, 학술비전 2030)하고, 향후 우리나라 학술발전 1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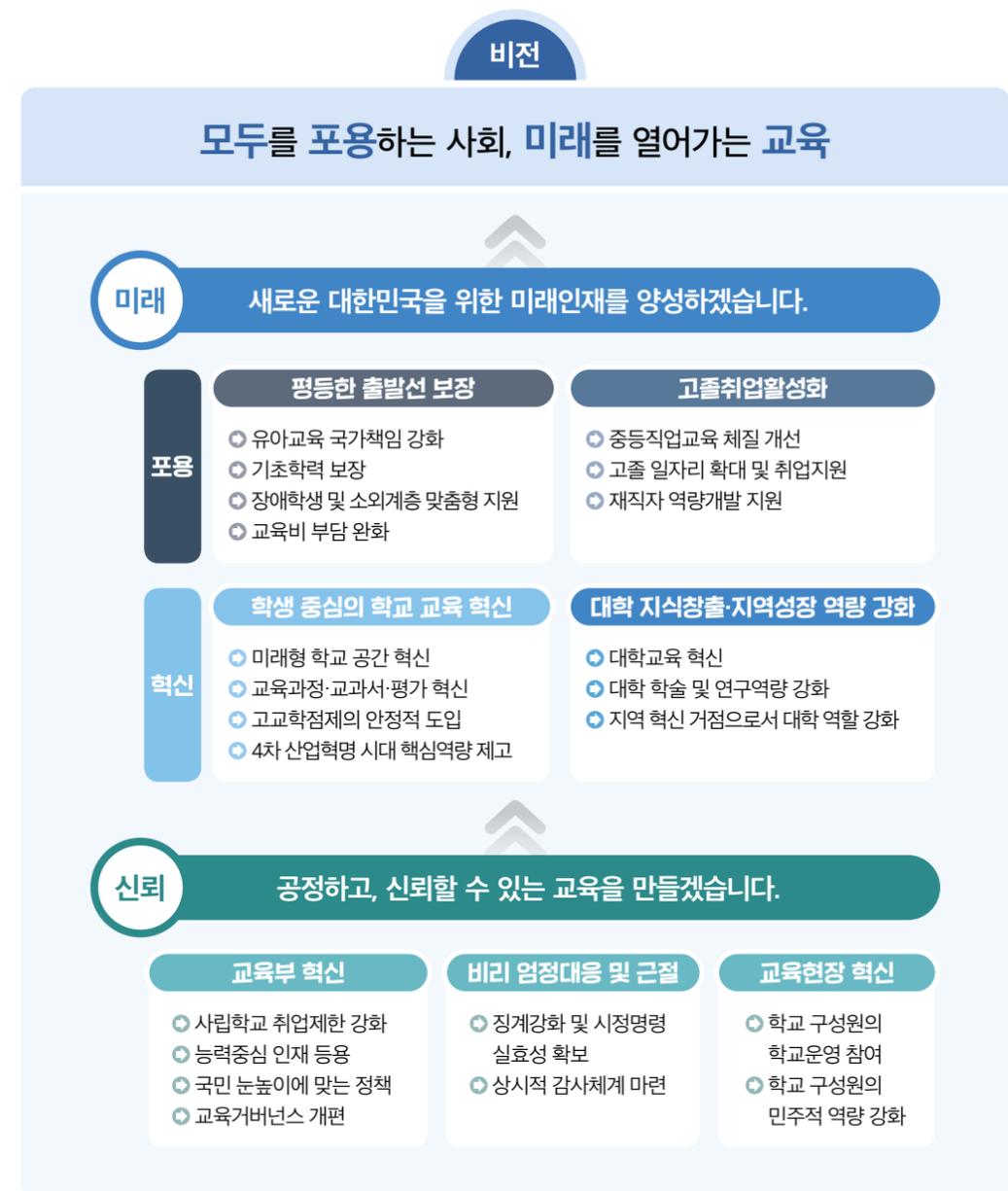
연구 기여도가 없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을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립대학은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으로 육성('19. 1,504억)한다. 향후 2-3년 내 입학자 원 급감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폐교가 교직원·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더 궁금하다면 20페이지로 이동

### 4 고졸 취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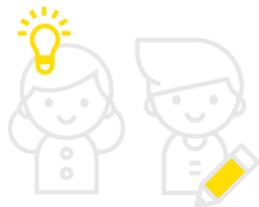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졸업 후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적성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한다. 직업계고를 학

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만든다.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19. 5교 → '22. 50교)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모델을 발굴한다.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문화 개선 등 직업계고의 자발적인 혁신

을 지원한다. ▶ 더 궁금하다면 16페이지로 이동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모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19. 거점국립대 → '22. 전체 국립대)하고, 재직자가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고졸 취업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7



#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습니다”



유아·초등 저학년은 학생의 일상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됨(PISA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읽기의 경우 '12년 7.6% → '15년 13.6%, 수학의 경우 '12년 9.1% → '15년 15.4%로 증가)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 질 높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먼저, 교육부는 질 높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 '21년 까지 국·공립유치원 40% 달성('19. 1,080개 학급 신설)을 통해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돌봄 확대 등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특히 통학권역이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유아·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19.하)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며 놀이교육 문화 조성하고 확산한다. 올해 36개의 혁신 유치원을 '19년에는 60개로 늘리고,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올해 51개에서 '19년 500개로 확대한다.

## 국어·수학·영어 교육 격차 예방

모든 아이가 선행학습 없이도 한글, 수학, 영어 기초 수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한다. 학생의 한글 익힘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 학습지 및 성장보고서를 제공하는 웹기반의 한글책임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한글 또

박또박’ 등을 활용하여 초등 1학년 누구나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으로 자녀 성장결과를 안내한다. 또한 초등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의 교수·학습자료 등을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는 수학교육을 실현한다. 그밖에도 초등 3학년의 경우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기준,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9년 상반기에 교육청·학교 단위 초3 영어수업 보조인력(학부모, 임용후보자 등 자원봉사자)을 모집하고 내년도 2학기부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학년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등 전방적인 언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학년은 놀이·활동 중심, 4-5학년은 듣기·말하기 중심, 6학년은 읽기 능력 중심으로 지원한다.

##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률을 제고한다. 학습부족 정도와 원인에 따라 ‘교실(수업) 내 - 학교 내 - 학교 밖’으로 이어진 촘촘한 3중 지원 안전망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표준 가이드라인(초등)을 제작 보급하는 등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쓴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특수학교(3개교)·특수학급(250학급)을 신설하고 특수교사 증원('19. 926명 예정) 등을 통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국립대학(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

학교(21년 개교)를 설립하여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18년 2,115개 → '19년 2,500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진로교육과 취업연계를 위한 거점대학 6개교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18.12)한데 이어,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 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등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저소득층의 유아교육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학부모부담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19.3월-)하며, 초·중등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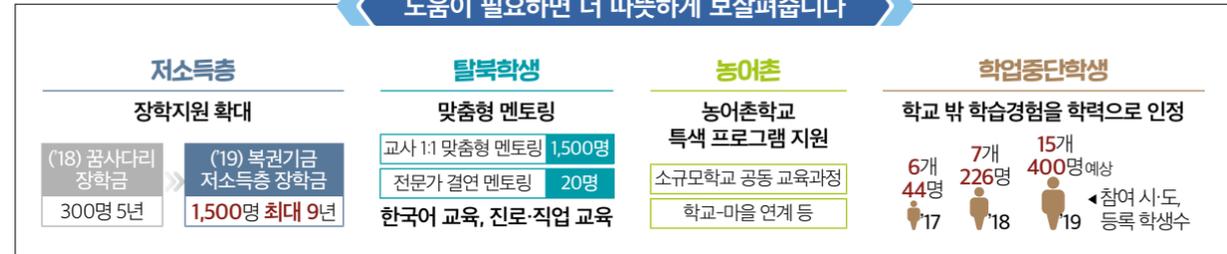
이에 따라 지원금이 초교는 '18년 11만 6천 원 → '19년 20만 3천 원으로, 중·고교는 '18년 16만 2천 원 → '19년 29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도 중위소득 대비 반값 등록금 수혜 범위도 '17년 90% 이하 → '18년 120% 이하 → '19년 130% 이하로 확대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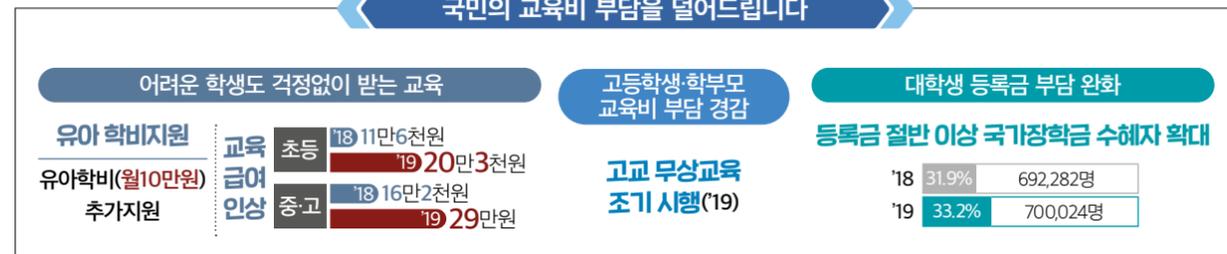
### 같이 출발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면 더 따뜻하게 보살펴줍니다



###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청년들의 성장경로를 위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교 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 구인난, 대졸 이상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은 75만 명, 고졸 인력 초과수요는 113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17,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체질 개선

먼저, 교육부에서는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체질 개선에 나선다.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교육역량 강화·학교문화 개선 등 직업계고의 자발적인 혁신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2년까지 약 500개(누적)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을 ’18년 150교 → ’19년 250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절차를 합리화(’19.상)하고, 학교 교육과정(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집중이수, 학기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밖에도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운영한다. ’19년 5개교를 시범 운영한 후 ’22년까지 5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수인력으로 지역명장을 적극 활용하고 생활 SOC 협동조합 등을 학교 내 설치·운영하여 현장 실무교육을 확대, 지역기업으로 취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또 직업계고 계열·학과개편, 학점제 도입과 연계하여 산학겸임교사, 산업계 현장전문가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확대한다.

###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교육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고졸 학생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취업 지원에 나선다. 공공부문 차원에서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 및 공공기관 고졸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하면 정부차원에서 목표 이행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차원에서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능력 중심 고졸인재 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19년도 상반기에 인증심사지표를 마련하고 하반기에 인증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세제혜택,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한다.

또한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1인당 300만 원으로 늘리고 ’18년 2만 4천 명 규모에서 ’19년에는 2만 5,500명으로 확대한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중에서 선별하여 지원한다.

또한 취업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교당 1인 이상 배치(’18년 100명 → ’19년 400명 → ’22년 1천 명)한다. 취업지원관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학생의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에게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지원(’18년 290억 원 → ’19년 580억 원)한다.

한편,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확대(’19년 거점 국립대 → ’22년 국립대 전체)하고, 대학 내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를 확산 지원한다.

재직자 전담과정을 통해 학습경험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전문대학(6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년도(3+1년)로 변경한다. ㉔

### 직업계고 교원의 개방성·유연성 확대방안(안)

#### 산학겸임교사

정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과정 활성화(’19.하~)

#### 현장전문가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19. 참여대학 발굴 ⇨ ’22. 신입생 모집)

#### 제도개선

신산업분야 전문가 임기제 채용(5~10년) 근거 마련(’19.하~)

###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교육 받습니다

#### 중등직업교육 체질 개선

##### 직업계고 학과 개편

’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2년까지 약 500개

#### 직업계고 취업지원

##### 모든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지원

##### 국립대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등 산업구조와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단순 지식·기술 습득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창의성·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먼저, 학생 중심으로 학습공간을 다양화하고, 친교·놀이 활동 등이 가능한 창의·감성적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놀이학습과 융합교육, 첨단미래교실 등의 학습공간과 무대·드라마실 등 자기표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에는 시·도교육청별 공간혁신 관련 사업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고,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공간별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접근 활용과 교육격차 해

소를 위해 ‘교육용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과정·교과서·평가 혁신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학생·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2019년부터 개별 과목에서 범교과 학습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0년부터 교과군별 20% 범위에서 감축된 시수를 지역 연계 활동 등 교과융합 창의활동에 운영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과서는 일부 교과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하여 학교 수업의 자율성·창의성을 강화한다(학교장 개설 교과 : (19)개발·심사 → (20)적용 / 전문교과 : (19~20)개발·심사 → (21)적용).

평가는 서·논술형 평가,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문제해결력 함양과 성장, 발달을 지원하게 된다.

### 미래형 학교공간 혁신



#### 기존의 학교 시설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학교 설계

휴식·놀이·교류가 부족한 학습 위주의 학교 공간

공급자(교육청·학교) 위주의 학교 건축

지역사회와 분리된 학교 공간



#### 미래의 학교 공간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 설계 및 배치

어울림, 심과 교류가 가능한 휴게공간이 있는 학교 공간

학생이 참여한 수요자 맞춤형 공간 설계

복합화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및 개방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고교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는 도입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는 2018년 105교에서 2019년 342교로 크게 확대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고교학점제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유연한 학사운영을 토대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에 대한 특례도 검토·적용된다.

직업계고는 학점제를 우선 도입하여 학과 간 융합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및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는 2018년 23교에서 2019년 100교로 확대하고, 2020년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부터 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다.

고교학점제 도입·확산에 대비하여 연구·선도학교 이외 일반고에서의 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온라인 공

동 교육과정 : (17) 6개 교육청 → (18) 11개 교육청 → (19) 17개 교육청).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 제고

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를 촉진하고, 학교 SW교육을 확대에 따른 교원 역량을 강화한다.

2019년에는 ‘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이 추진되며, 다양한 수업모델과 컨설팅이 지원될 예정이다. SW교육은 초등 5·6학년, 중 1·2학년에서 필수로 도입되며,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SW교육 내실화 등이 추진된다.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원칙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주적 문화 확산을 위한 ‘(가칭)민주시민학교’를 2019년까지 51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예술이음학교(19. 11교)와 문화소외지역 지원 예술드림거점학교(18. 88교 → 19. 211교)도 확대 운영한다. 2)

###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과목 개설 사례

#### 공동 교육과정

인천 선인고는 인근 인화여고와 시간표를 공유하여 본인 신청과목이 개설된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창의경영, 로봇공학 등)에 참여

#### 대학교원 활용

공주 사대부고는 학생 수요는 있으나 학교 내 자격 소지 교사가 없는 과목에 대해 공주대학교 전공 교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수업 개설

# “대학이 지식창출과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지식창출을 위한 대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은 설립목적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의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에 따라 대학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 선택하여 교육·연구·산학협력에서 혁신모형을 창출하고 대학의 혁신

을 견인한다. 전문대학은 전반적인 혁신 지원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환경개선 등 대학교육 혁신기반을 마련한다('18년 10교 → '19년 20교).

##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학계가 주체가 되어 학술 중장기 계획인 '(가칭)학술비전 2030'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학문의 균형 발전과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고 분과학문 연구에서 의제 중심 연구로 전환, 학제 간 융합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 학문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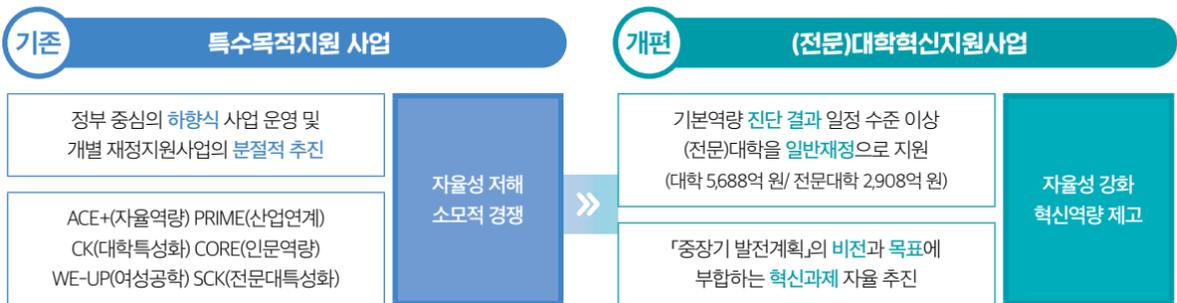
BK21 후속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고, 석·박사급 미래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 사례

**(00대) 'K-Cloud 기반 초연결 서비스'를 통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K-Cloud 기반 비교과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및 연구실적 관리 체계 구축,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학업 성과 등을 통합 데이터를 통해 분석·환류하는 빅데이터 기반 전주기적 학생 이력 관리 시행

**(00대) '경계 없는 TEAM(Think, Express, Act, Make) 교육 생태계' 구현**  
교양 및 전공 교과목에 시민참여 활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연결하여 학생과 교수가 함께 체험하는 혁신적 교육 모델 운영

## 대학 혁신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 BK21 후속사업 개편방향(안)(20~'27)

#### 추진목표

QS 세계대학평가 100위권 대학 10개내 외, SCI급논문 피인용지수 35위 → 25위 등

#### 추진방향

대학원 전체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고급 혁신인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① 소학문 분야에 걸친 대학원생 연구역량 제고
- ② 혁신성장 선도 분야 및 사회문제해결 중심 연구인력 양성

###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강화방안

#### 연구윤리 제도개선 방안(19.상)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승인 의무화, 연구비 수혜 상위 20교 대상 연구윤리실태조사 등

####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19.상)

대학연구비 집행·정산내역 공개, 부적절집행 제재처분 강화 등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처우개선 예산으로 내년까지 288억 원을 지원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등도 마련한다.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은 대폭 강화한다.

##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국립대학을 지역별 거점으로 하여 우수인재 양성과 취약 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

### '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집중 지원 분야예시

#### 지역사회 기여

지역현안 해결, 지역특화 인재양성, 문화공간으로서의 대학 등

#### 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역인재 및 취약계층 대입전형 확대, 후학습자 전담과정 등

#### 기초·보호학문 육성

공동 교육혁신센터 및 교육과정, 학술지원 공유 등

등교육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을 2018년 800억 원에서 2019년 1,504억 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공동연구,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공유 등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협력·연계 분야 발굴에서 더 나아가 내년에는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 대학의 폐교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입학자원 추정 : ('19) 506,286명 → ('21) 427,566명 → ('23) 398,157명)으로 문 닫는 대학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학·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법」 등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

##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양성합니다



## 충청남도교육청\_ 행복나눔학교 '송남초등학교' 공유의 리더십, 교육가족을 춤추게 한다

송남초등학교(교장 윤희정)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생태전문가 등 마을교사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도예촌, 미술관, 산, 민속마을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등 마을과 연계한 창의적이고 풍성한 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 행복나눔학교 4년차인 송남초는 공유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배움을 공유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등대 같은 학교를 지향하며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



### 우리들의 진로 버킷리스트

“아픈 강아지가 동물병원에 왔어요. 검사를 위해서 피를 뽑아야 하는데, 이 때 동물병원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작은 강아지는 옆구리에 끼고 한 손으로 앞다리의 관절을 짚 잡아서 눌러줘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관(턱)을 잡아 당겨줘요.”

“선생님, 강아지가 아프지 않을까요?”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 신속하게 피를 뽑을 수 있고 수의사 선생님도 강아지도 덜 힘이 들어요.”

충남 아산시에서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오늘은 인근의 송남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1일 선생님이 되어 진로수업에 나섰다. 그동안 동물을 키우는 경험담과 간호사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10명 남짓한 학생들에게 강아지, 고양이의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 동물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반려견을 위한 펫푸드 만들기 등 풍성한 내용으로 수업을 준비했다.

평소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동물팀은 강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수업에 푹 빠져들었다.

1.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하는 특별한 도서관
2. 동물팀의 진로체험
3. 창작팀의 레고작품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최윤하(6학년) 학생은 “오늘 들려준 이야기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자세하게 가르쳐주어 반려견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수의사의 꿈도 소중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한다.

동물팀 외에도 크리에이터팀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노래팀은 랩 작사해 보기, 항공팀은 시뮬레이터와 모형항공기 만들기, 요리팀은 요리하기, 스포츠팀은 아산무궁화축구단과의 후기 활동으로 축구연습하기, 창작팀은 목공과 아두이노 다루기, 한의사팀은 마을 앞 한의원에 들러 한의사 인터뷰하기 등 진로프로젝트가 학교 안팎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김구현 교사는 “각자의 진로에 맞춰 1~6명 규모로 모둠을 구성해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며 “오늘 이 수업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결과를 나누는 것을 목표”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6학년 진로프로젝트.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 중심이며 선생님의 속도가 아닌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져 있다. 또한 모든 교육가족이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담임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시스템은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와 힘을 준다.

복준수(교무부장) 교사는 “행복나눔학교 초창기에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팀을 꾸렸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아이들 성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본질적인 물음을 하게 됐다.”며 “공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수업, 평가, 나아가 피드백까지 깊이 있게 논의하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말한다.

### 학부모에게 문턱이 낮은 학교

기자일행이 송남초를 방문한 11월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에 이름표를 달고 있는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었다. 송남초 생태지원단 열혈 학부모들로 김현미(생태지원단 단장) 학부모는 “아이들이 나무의 꽃이나 잎을 보고 이름을 알았는데, 지금은 잎이 다 떨어져 나무의 이름을 알기 어려워졌다.”며 “한 아이가 잎사귀 다 떨어진 나무의 이름을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다 알려줄 수가 없어서 이름표를 달게 됐다.”며 웃는다. 김현미 학부모는 “송남초에서는 선생님도 학부모도 아이들이 더디다고 다그치는 법이 없이 기다려준다.”며 “부모, 교사, 아이가 소통이 잘 이뤄지는 데 이것이 학교의 참 매력”이라고 말한다.

송남초는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산하에 아빠모임, 생태지원단, 도서지원단, 놀이지원단, 연수지원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회는 매일아침 교통지도를 전적으로 맡아하고, 아빠모임은 야외도서관, 벤치, 평상 등 학교시설물 개선은 물론, 아침 빵 제공, 1박 2일 캠프운영, 1학년 학부모오리엔테이션, 아빠동아리 조직운영 등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태지원단은 생태한마당 기획운영, 생태수업, 수목패찰 패용 등을, 도서지원단은 원화전시, 도서대출 및 도서관 운영은 물론 연중 독서행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 놀이지원단은 놀이한마당 기획 운영, 놀이수업,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를 해주고, 연수지원단은 교사-학부모성장연수시 강사섭외 및 연수진행을 해오고 있다.

1층에 위치한 학교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며, 오전에는 도서지원단 학부모들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지역사회에서 고용한 사서가 관리한다. 학교 문이 닫힌 늦은 시간에도 도서관의 불은 꺼지지 않고 마을을 밝힌다.

### 마을 연계한 풍성한 교육과정

또한 송남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생태전문가 등 마을교사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도예촌, 미술관, 산, 민속마을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등 마을과 연계한 창의적이고 풍성한 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학년별 생태교육과 '바늘장군 김돌쇠'라는 학생들이 제작 중인 영화가 대표적이다. 하신하 작가(한때 송악면에 거주하

며 이 책을 집필하였다고 함)가 아산과 평택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책 『바늘장군 김돌쇠』를 영화로 제작하고 있는 것. 온책읽기 활동 후 역사의 한 장면을 대본으로 만들어 촬영에 들어갔다. 카메라 작동법을 꼼꼼히 살피고, 각자 역할을 정해 충분한 연습도 했다. 여기에 감독 이외에 분장, 소품 등의 역할이 진행되어 현재 활발하게 촬영 중이다.

학년별로 이뤄지는 생태교육은 지리적인 잇점을 충분히 살렸다. 1~2학년은 인근의 영인산을 중심으로 숲체험을, 3학년은 학교에 조성된 텃밭에서 생태교육을, 4학년은 학교 뒤편으로 흐르는 냇가에서 수서생물 생태교육을, 5학년은 나무화분에 꽃을 길러 원예교육을, 6학년은 논수업 생태교육을 해오고 있다. 모내기 전 빈 논에서 자라는 생물관찰에서부터 추수까지 일련의 과정을 마을선생님과 함께 한다.

정하중 교감은 “송남초, 거산초, 송남중의 교사와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교육활동가 등 송악의 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이 모여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협의회가 활발하다.”며 “매년 이뤄지는 마을축제도 함께 고민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행복한 교육이란 무엇일까? 윤희정 교장은 “아이들이 삶의 주인공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사람과 더불어 가며 사람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함께 할 때 교육은 더욱 빛이 난다. ②

4. 베이컨크림스파게티를 만들고 있는 요리팀 5. 학교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생태전문가 등 마을교사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6. 마을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김돌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촬영하는 6학년 아이들 7. 온 마을이 함께한 마을축제 8. 학교 물고기광장에서의 버스킹공연

### INTERVIEW “배움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등대 같은 학교”



윤희정  
아산 송남초등학교 교장

- Q 송남초 혁신교육의 철학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자신을 자신 있게 표현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 속에서 성장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 학부모들은 적극적인 학교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주며 행복한 것으로 즉 송남초등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 Q 행복나눔학교 1기로서 걸어도 발자취를 돌아봤을 때 송남초의 노력과 결실을 꼽는다면.**  
민주적협의체 운영과 교무업무지원팀 구성 운영으로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신바람 나게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전문적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로 스스로 성장하며 자긍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생태전문가 등 마을교사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도예촌, 미술관, 산, 민속마을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등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풍성한 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꿈을 갖고, 꿈을 키우며 마을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역아동센터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축제를 함께하는 등 학교 문을 활짝 열어 교육효과를 증대시켰다.
- Q 내년도 행복나눔학교 2기를 앞두고 있는데 다. 2기 계획은?**  
특별한 학교가 아닌 공교육의 모델학교로 누가 와서 보든 고개를 끄덕이는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평범하지만 아이들을 중심에 둔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로서 주변학교에서도 부담 없이 드나들며 배움을 공유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 속에서 교직원, 학부모도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이다.

## 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 “자립을 위한 아이들의 꿈을 이뤄줍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특수교사는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조금은 불편한, 그래서 더 특별한 아이들과 호흡하며 자립의 꿈을 심어 주고 있는 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선생님을 만났다.

대학교 1학년이 되던 해, 특수교육 전공과 수업이 있던 날이었다. 인근 특수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며 교수는 수업을 듣던 한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애처롭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특수교사가 될 자격이 없네. 저 아이들이 왜 애처로운가? 아이들은 교육의 주체이지 연민의 대상이 아니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수업에 더 들어올 필요가 없네.”

30년도 훨씬 지난 일이지만 잊히지 않고 머물러 있는 기억의 한 조각. 부끄러워 고개를 떨궜던 그 학생이 이제는 어엿한 27년 차 특수교사가 됐다. 김윤현(53) 경기 다원학교 교사는 지난날이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 나날이었다고 회고한다.



1. 제자가 도기로 만든 김윤현 교사 얼굴. 그의 교무실 책상 위에 항상 소중하게 놓여 있다.  
2. 3. 김 교사는 교내 카페를 직접 설계한 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해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 ‘소외’된 아이들의 꿈·끼 찾기... 특수학급 연합캠프로 실현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달리 보는 시각이 존재하지요. 그때 교수님의 불호령을 떠올리면서 특수교사로서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자 ‘장애’는 더 이상 교육활동에 걸림돌이 아니었다.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지도할 때는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끄는 데 그는 힘을 쏟았다. 당시만 해도 매년 하는 인성수련 프로그램에서 특수학급 아이들은 소외돼 왔거나, 참여하더라도 일반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주변 중등 특수학급 담당교사들과 힘을 모아 ‘특수학급 연합캠프’를 기획했고, 그 이듬해인 2009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끼와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

주변의 지지와 학부모 호응에 힘입어 2013년까지 꾸준히 열린 연합캠프를 통해 장애학생들은 여러 학교 아이들과 친분을 쌓으며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또한 교사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돼 타 학교로 전보를 가거나 장애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는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났다.





부가 주관한 '2016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공모전'에서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힐링파크와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 'Y'자 형태의 교사동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받은 학교다.

더 나아가 그는 체육대회와 현장학습에서도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운동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체육대회와 현장학습이 열리는 날에도 특수학급 교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중등 특수학급 담당교사들과 협의해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수학급 연합체육대회'를 5년간 꾸준히 개최했다. 현장학습 또한, 특수학급 간 연합을 통해 마라도, 성산 일출봉, 민속마을 등을 함께 둘러볼 기회를 마련했다.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나 특수학급 규모, 예산, 지역적 위치 등에 따라 경험의 범위에 대한 편차가 심합니다. 연합대회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힘들지만 큰 보람을 느꼈지요.”

### 장애학생 자립 돕는 역할 찾아주기

특수교사들과 연대하고 함께 하는 과정에서 일궈낸 변화는 그에게 더 큰 희망을 그리게 했다. 특수교육교과연구회를 통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워크숍,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때는 연수와 각종 현장지원을 위한 컨설팅에 힘을 쏟았다.

2016년부터는 이천 다원학교 개교를 위한 준비위원으로 쉼 없는 나날을 보냈다. 이 지역 숙원 사업이던 다원학교는 유·초·중·고교와 전공과를 둔 공립 특수학교로 그해 3월 문을 열었다. 교육

학교 곳곳에는 그와 동료교사들의 고민과 열정이 깃들어 있다. 텐트와 야외의자, 돛자리를 깔아 아늑한 캠핑 공간으로 꾸민 홈베이스와 옷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전통놀이존도 있다. '자동차 극장'에는 합판으로 손수 만든 모형 자동차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원헤어숍'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미용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주 1회 미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학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기초생활 훈련을 위한 편의점과 은행 창구 등을 그대로 재현해 실생활 자립 활동을 돕고 있다.

“아이마다 자기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지만, 아직 찾아주지 못했을 뿐이지요. 자립을 위해 아이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큰 기쁨을 주는 아이들이지요.”

특수교사는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교육을 한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혹은 진출한 이후에도



특수교사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아이가 장애를 딛고 사회 구성원으로 완전하게 자립할 때 교육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통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생의 경우 20~30%의 학생이 취업에 성공하고,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재직하는 경우는 그중 10% 안팎에 머문다.

진로·직업교육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김 교사는 고등학생과 전공과 학생들이 사업체 현장에서 다양한 직업적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체를 발굴하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바리스타 자격취득반, '디톡스&스무디' 자격증 과정, 청소실무 프로그램인 '크림마스터' 과정을 개설하고, 교사와 학부모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장애아동은 유아 때부터 부모교육이 필수

특히, 그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부모교육이다. 일찍부터 유·초·중·고·전공과 부모를 대상으로 졸업 후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연수를 시작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일수록 어릴 때부터 부모의 지원과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다.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는 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졸업 후 진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유아 때부터 계획하고 설계해야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특수교사는 교사와 부모 중간 어디쯤 존재합니다. 사회에서 잘사는 모습을 봐야 교사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할까요? 제자라기보다는 자식을



4. 5. 그와 동료교사들이 만들어 가는 다원학교 교내 홈페이지
6. 뉴스포츠 플로어 컬링으로 손 근력을 키우는 체육 수업
7.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진로·직업교육은 김 교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일이다.
8. 부모교육은 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아이 자립을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9. 김 교사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특수교사에게는 더 깊은 고민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한다.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지요.”

그는 특수교사가 사명감과 봉사정신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사명감이나 봉사정신도 지치고 힘들면 소진되기 때문에 투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교육을 해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누구나 특수교사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여전한 편견과 오해는 그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일이다. 특수교육의 현주소가 “찾잔 속 태풍”이라는 그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직도 편견은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고 진단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글마다 댓글을 달고 있다는 그는 비장애학생 학부모와 일반교사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 설계)으로 사회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



## 김점선 교사의 공지락 프로젝트

# 인문텃밭에서 행복한 삶을 나누는 수업 이야기



### # episode 1 읽고, 보고, 느끼고

“선생님. 그림책 읽어 주세요.”

국어 수업이 일찍 끝나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너희가 골라와 봐.”

아이들은 앞다투어 공지락 책방으로 달려간다. 공지락 책방은 교실 한켠에 마련된 학급책방이다.

“선생님, 이거요.”

한 아이가 『수박이 먹고 싶으면』 그림책을 들고 간절한 눈빛을 보낸다. 용케도 아이와 내 마음이 통했다. 나도 며칠 전 읽었던 『나무의 씨앗들』과 함께 읽고 싶었던 책이었다.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2



“애들아, 수박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박씨를 심어요.”

쿵작이 잘 맞는다. 학교에는 우리반 텃밭이 있다. 텃밭에는 우리가 심은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 호박이 자라고 있다. 우리는 곧장 텃밭으로 갔다. 호박 옆에 있는 수박 모종을 우리가 째서 키우기로 했다.

“선생님. 노란 꽃이 폈어요.”

“아기 수박이 너무 귀여워요.”

“우와 이게 수박인가봐요.”

수박 모종에서 넝쿨을 뺀고 꽃을 피우더니 조그만 수박 열매가 열려있었다. 아이들도 나도 수박의 성장과정이 경이롭기만 했다.

“이름을 지어줘요.”

한 아이의 제안에 ‘삼삼수박’이라는 멋진 이름을 짓고 아기 수박을 위한 헌시를 지어 낭독하였다.

“우리 수박 보러 가요. 너무 더워서 수박이 말라죽을 수도 있어요.”

중간놀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내 손을 잡아준다. 햇살이 짹 짹 내려 쬐는 텃밭에 시원한 물을 뿌려주고 수박과 수박 줄기를 살폈다.

“수박아, 내가 주는 물 먹고 쑥쑥 자라.”

초보 꼬마 농사꾼들은 수박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텃밭에서 과연 수박이 클 수 있을까? 자라다 말면 아이들이 너무 실망할 텐데. 어찌지.’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수박은 아이들의 주먹 크기에서 축구공만한 크기로 잘도 자랐다.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쑥쑥 자라는 듯했다.

“2주 정도 있으면 수박을 먹을 수 있겠는데.”

내 말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수박이 없어진 것이다. 아이들은 밭을 동동 구르며 수박을 찾아 다녔다. 범인은 4학년 형이었다. 실수로 줄기를 밟아 수박을 따버렸다는 것이다.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은 울상이 되었다. 다행히 우리가 키우던 수박 옆에 또 다른 작은 수박이 자라고 있었고, 우리는 소중히 몇 주를 더 키워냈다. 드디어 수박을 수확했다. 우리는 교실로 가져온 수박을 온종일 관찰했다. 수박에 관한 책도 보고 글도 읽고 그림도 그렸다.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수박이 자라서 맛있어 보였다. 화채로 해먹어 맛있었다. 수박이 이렇게 맛있기는 오랜만이다. 화채 먹기에 좋은 날씨였다. 너무 맛있어서 배부르면 화장실 갔다가 또 먹고 계속 먹었다.” 민형이는 맛도 기분도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추켜들었다.

### 아이들이 경험을 그림책으로 고스란히 담자

“우리 수박 그림책 만들어 볼까?”

그림책 쓰기 수업은 국어시간과 미술시간을 연계해 이루어졌다.

아이들이 한 책상에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어떤 그림을 그릴지 나름의 스토리보드를 짰다.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글과 그림으로 녹여내었다.



1. 아이들이 직접 쓴 『삼삼 수박이 자라면』을 읽고 있다.

2. 수박을 주제로 지은 ‘아기 수박’

3. 4. 수박재배



5. 6. 아이들이 소중하게 키워낸 수박을 수확해 교실로 가져와 종일 관찰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친구들과 수박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나누고 자신 나름의 생각을 엮고 마음을 전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삼기초 3학년 아이들의 『삼삼 수박이 자라면』이라는 그림책을 출간하였다.

“수박책을 만들기 위해 수박을 키워보았는데, 첫 번째 수박은 어떤 사람에게 밟혀 실패했다. 두 번째 수박은 잘 키워 성공을 했다. 수박책의 내용은 우리가 수박을 키우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우리가 책을 완성해 뿌듯하다” - 조호재 학생

“수박을 책으로 만들 때 그림이 정말 재미있었다. 때로는 힘든 과정도 있었다. 나는 수박 꽃과 벌, 나비, 수박 줄기, 나뭇잎을 그렸다. 수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좋았다. 힘들었다. 하지만 책이 몽땅 만들어져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참 재미있는 그림책이다. 가족과 함께 보고 싶다.” - 한평화 학생

가장 능동적인 독서는 창작이라고 했다. 독서를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직접 창작의 경험으로까지 이끌면 자신과 우리, 세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학급살이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더불어 한 권의 책을 완성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삼 수박이 자라면』 그림책은 현재 어린이 작가들이 출간한 『감정인문 그림책』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하고 학교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 episode 2 환상의 책작공과 함께라면!

처음 시작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교실에서 도란도란 누워 책 읽는 아이들을 찰칵 찍었다. 그리고 지역의 작가들에게 SNS로 도움을 요청했다. 단번에 1대1 짝공이 맺어졌다. 동시를 좋아하는 범우는 시인에게 나머지 학생들은 동화 작가와 짝공이 되었다.

“선생님, 제 책 왔어요?”

아이들 아침인사는 ‘안녕하세요’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책작공 책이 모두 도착하면 함께 우편을 뜯어 보기로 해서이다. 교실 한 칸에 한 권 한 권 책이 도착할 때마다 아이들 마음도 덩달아 잔뜩 부풀어 올랐다. 드디어 마지막 책이 도착했다. 함께 우편 봉투를 열어 책을 보는 순간이다.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선생님, 제발요. 지금 당장 책 읽어요. 저희에게 책 읽을 시간을 주세요.”

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아이들은 교실에서 편안한 자세로 두 시간을 내리 책을 읽었다.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오랜만이였다. 다음날은 서로 서로 바뀌가며 보고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이들은 책작공 작가에게 고마움의 편지와 기억에 남는 구절, 그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짝공 작가의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 읽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책작공과 특별한 교감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 우리반 상준이의 책작공이 북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에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였다.

“선생님, 임지형 작가가 나를 알까요? 짝공을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상준이는 임지형 작가가 보낸 책의 사인과 내용을 보고 또 보더니 그 책과 새로운 책을 챙겨 북콘서트장으로 향했다. 연예인이라도 보는 듯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상준이는 행사가 끝난 후 사인을 받는 자리에서 수줍게 자신이 써온 편지를 건넸다. 임지형 작가도 잊지 않고 나온 새책을 보내주겠노라 약속했다. 다른 책작공 작가들도 조만간 짝공을 만나러 오겠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반 9명의 아이들은 세상과 소통하며 자라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과 만나는 것이다. 책을 쓴 작가와의 소통은 더욱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이를 통해 책읽기에 대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다.

공지락 인문텃밭 프로젝트! 올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학급의 모습이였다. 아이들과 인문학을 토대로 공감(철학), 지혜(문학), (예술)의 씨앗을 키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 싶었다.



7. 책작공의 책선물이 도착하던 날 아이들이 “책 읽을 시간을 주세요”라고 외쳤고, 아이들은 편안한 자세로 두 시간 내리 책을 읽었다.  
8. 책작공의 소중한 선물을 받은 아이들

“아이들아, 너희는 행복하니?”

『삼삼 수박이 자라면』 그림책과 『환상의 책작공』은 공지락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수박에 관련된 그림책을 보고 수박을 키우는 그 과정을 그림책으로 출간하면서 생명 존중은 물론 서로가 소통하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정서적인 감정을 표출했다. 환상의 책작공을 통해 책 속에 담긴 삶은 물론 책 밖에 있는 세상과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

책을 가까이 하고 책쓰기를 하면서 자기를 깊게 들여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듯이 올 한해 우리 아이들도 나름의 자기만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

“아이들아, 너희는 행복하니?” 묻는 말에 교실이 떠나갈 듯 소리친다. 아이들의 소리가 교실 문을 지나 학교 담장을 넘어간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법부터 이를 표현하고 서로 느끼는 과정이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함께 사는 삶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공감, 지혜, 즐거움을 알고 한발 한발 달려 나가는 아이들을 응원한다. ㉠



# 대전괴정고등학교 메이커교육 똑딱똑딱 기발한 아이디어가 현실로 함께 만드는 목공 수업으로 사고력 쑥쑥



1

쑥~쑥 쑥~쑥

나무를 자르는 툽질 소리. 웅~ 웅~ 전동드릴 소리와 똑딱똑딱 망치질 소리가 교실 창문을 넘는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선도학교인 괴정고등학교(교장 오석진) 창의공작실. 3층 복도에 늘어선 목공테이블을 지나 교실로 들어서자 각종 공구가 가득하다.

5~6명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작업 테이블을 중심으로 3D프린터, 노트북, 목공 공구함이 비치돼 있고, 각종 재료를 재단할 수 있는 레이저 커팅기와 드릴프레스, 목공 공구함 등이 작은 ‘공구방’을 연상케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바람 방향을 만들려면 구조를 바꿔야 해!”

“여기, 툽질을 다시 하자!”

작업 테이블 위에서 설계 도면을 살펴보던 아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꼼꼼하게 수치를 재고 3D프린터로 필요한 부품도 척척 만들어 낸다. 1학기 때 배운 ‘틴커캐드’를 활용한 모델링 수업으로 3D프린터 다루는 솜씨가 여간 아니다. 지주향(17) 학생은 “주변에서 3D프린터로 만든 제품들을 많이 보는데,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재밌었다. 3D 모델링 작업이 가장 기억난다.”며 웃는다.

### 자유로운 창작 공간 ‘창의공작실’

괴정고는 대전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메이커교육 선도학교 가운데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다.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보고, 창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메이커교육이 교육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메이커 스페이스다.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실을 아이들의 자유로운 창작공간인 ‘창의공작실’로 탈바꿈시켰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터 5대와 3D펜 5개, 진동드릴과 목공테이블, 각도절단기 등 각종 공구를 갖춰 다양하게 경험해 보고 활용해 보는 공간으로 인기만점이다.

### 메이킹 활동 자체가

융합교육이다.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설계, 디자인,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이 모두 융합된다.

- 1.2.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는 기술교과 메이커 수업
- 3. 학생들이 만든 목공 작품
- 4. 7명이 한 팀이 되어 만든 공기청정기를 들고 환하게 웃는 1학년 학생들





5 학생들은 1학기 동안 방과 후와 창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장비를 경험하고, 3D 모델링 수업과 목공 수업에 참여하며 메이킹 활동을 시작했다. 더 나아가 2학기에는 메이킹 장비를 활용해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가 정규교과 수업 안으로 들어왔다.

1학년 아이들은 지난 10차시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기술교과 수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를 계획하고 설계, 제작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주도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기후 변화와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 사전 조사를 마치고, 공기청정기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승현 기술교사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대화, 토론과 협업을 바탕으로 함께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같은 종류의 필터를 제공했음에도 하나의 필터를 여러 개로 분리하거나, 구조에 맞게 형태를 변형해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말한다.

**방과후·창제활동으로 메이킹 활동 활발**

메이커교육은 방과후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되며 더욱 활기를 띠었다. 1학기 방과후 수업인 ‘메이킹 메이킹’반에서는 1학년 전 학생들에게 메이커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다양한 관련 장비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3D모델링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틴커카드’를 활용한 모델링 수업이 진행됐다. 2학기에는 심화반을 개설해 ‘퓨전 360’을 활용한 3D모델링 수업을 희망자에 한해 열고, 모델링 수업 후 자유 작품을 직접 출력할 기회를 제공했다. 여름 방학 2주 동안 열린 ‘뚝딱이 목공반’ 등 우드스피커 제작하기, 나무 전사액자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활동은 목공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더욱 높였다.

1,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창의 목공반’은 올해 첫선을 보인 메이커 동아리다.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의 작업 테이블과 칠판페인트를 활용한 메모벽은 모두 이 아이들이 직접 제작했다. 리소페인 램프 만들기, 아두이노 및 모델링 수업 등 목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메이킹 활동이 이뤄지며 지금은 인기 동아리로 급부상했다. 특히, 내년에는 메이킹과 창업활동을 연계한 ‘메이커 창업반’ 모집으로 심화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상태다.

교사 연수 또한, 재미있게 메이킹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크릴 우드등 제작에 이어 기말고사 기간을 이용해 원목도마 만들기, 인테리어 터치등 제작하기 등으로 타 교과와의 연계를 높이고 있다. 오는 겨울방학에는 메이커교육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 연수도 계획 중이다.

**목공형 메이커로 아이들 정서 순화 효과 특출**

특히, 괴정고 메이커교육은 목공용 메이커 스페이스를 표방한다. 학생들이 자연 친화적이며 가공이 쉬운 재료인 목재를 경험하고 작품 제작에 활용하면서 정서 순화 효과를 특출히 거두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 목공 동

5.8.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기청정기 6. 공기청정기 제작 과정에서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학생들 7. 창의공작실에 비치된 레이저 커팅기. 교사 또한 장비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으며 메이킹 활동을 지원한다.



9. 수업 시간 3D모델링으로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학생 모습

록 하고 있다. 다만, 기술교과를 제외한 타 교과 적용과 수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재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오석진 교장은 “메이킹 활동 자체가 융합교육이다.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설계, 디자인,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이 모두 융합된다. 특히, 아이들이 만든 공기청정기는 각 실에 보급해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웃음).”며 “앞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메이커 관련 연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자 한다. 특히, 인근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해 메이커 스페이스가 갖춰지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도 메이킹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

아리를 모집해 목공을 기반으로 한 메이킹 활동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을 전망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별도의 실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 괴정고는 하나의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메이킹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통해 난제를 해결했다. 복도에는 간단한 목공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작업 케이블과 도면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칠판 페인트를 활용해 칠판벽을 제작했다. 김승현 기술교사는 “기존의 인문계고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목공 장비들과 4차 산업에 기반에 다양한 메이킹 장비들을 하나의 층(공간)에 구성해 복잡적이고 다양한 메이킹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며 “학생들이 지식을 확장하고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메이커교육이 장비 교육이 치중되거나 매뉴얼에 따라 간단한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고, 직접 원하는 제품을 모델링해 출력해 보는 과정으로 메이킹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교사 또한 장비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고, 무언가를 만들고 제작하는 활동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메이킹 활동에 관심을 갖도

**좋은수업 나눔학교**



대전괴정고는 메이커교육 선도학교와 함께 좋은수업 나눔학교로 교사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좋은수업 나눔학교는 대전교육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 사업으로 수업농실 구축 등 환경 개선을 통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대전괴정고는 수업 현장을 촬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동식 촬영 기기와 고정형 빔프로젝터 등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업나눔실을 구축, 관심있는 교사가 언제든지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료 수업을 성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문적 교사 학습공동체 ‘다락방’은 자기 수업 모니터링, 수업컨설팅, 각종 교과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업나눔실의 활용도를 높인다. 현재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팀과 교육청 지원팀 1개 팀이 수시로 활발한 토의토론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을 추진해 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근 교사들이 함께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장소로 활용되며 교실수업 개선 확산을 이끌고 있다.

“ 글 **조선영** 명예기자

## 세계시민의 길, 공정무역으로 배우다



경기 안양 신성중학교 학생들은 연간 다양한 공정무역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는 (재)아름다운커피가 주관하는 공정무역교실 발표대회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지난달 11월 세계시민교육포럼의 현장에서 만난 변지윤 교사로부터 세계시민교육 이야기를 들어봤다.



신성중 아이들은 인근 수리산에서 자유학년제 활동을 통해 숲을 직접 관찰하며 꾸며보는 활동을 한다. 지역의 자연을 이해하는 활동과 더불어 농장체험 활동을 통해 유기농 면을 사용한 공정무역 의류, 제3세계의 자활을 돕는 공정무역 간식, 지역사회를 돕는 지역협동조합제품, 장애인자활기업제품에 대한 캠페인과 체험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윤리적 소비를 늘리고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

주말과 방과 후 시간에는 친구, 부모님과 함께 여행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공정여행을 하며 그 과정에서 난 식자재로 만든 슬로우푸드를 먹고 로컬푸드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신성중학교 학생들의 월별 활동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활동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 활동들은 학생과 학교가, 마을이,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일일 것이다.

### 공정무역 연간 활동

3월	지구촌 전등끄기 참여, 온실가스감축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방문 공정무역 강의
4월	장애인자활기업 체험, 사회적경제강의 협동학습, 수리산 숲체험(식물 관찰하기, 숲염서 만들기)
5월	소녀상 배지 제작 및 판매, 협동조합 한살림 강의, 새와 다람쥐 집 만들어 수리산에 달기, 공정무역의 날 공정무역 캠페인 및 전시부스, 친환경 제품 구입
6월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의, 전주 공정여행, 로컬푸드 캠페인 활동과 체험, 부모님과 서울 성미산마을공동체 저탄소 공정여행, 세계난민의 날 캠페인, 공정무역플래시몹, 공정무역 공익광고 촬영
7월	젠트리피케이션 특강 및 사회적경제 보드게임, 아름다운가게 방문 착한소비 체험프로그램, 공정무역 역할게임, 사회적기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
8월	안양 포도농장 방문 포도수확 체험, 공정무역 전문가 직업특강
9월	청소년 건전 콘텐츠 플랫폼 구축, 공정무역 제품을 활용한 카나페 만들기, 세계평화의 날 캠페인
10월	윤리적 소비 제품 방문 체험, 지역 축제 참여, 나무에 직접 짚 꼬가웃 입히기
11월	경기도내 동아리 학생들을 만나 사례 공유 및 발표, 윤리적 소비 제품 판매 수익금 NGO와 지역사회에 기부



“ 글 **차현숙** 명예기자

## 아빠들의 행복 육아 이야기, '100인의 부산 아빠단' 사진전

부산시는 다가오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100인의 부산 아빠단'의 활동 모습과 육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한다.

'100인의 부산 아빠단'은 아빠들의 육아참여 장려를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 아빠들의 모임으로, 지난 7월 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빠가 들려주는 성평등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멘토링, 아이의 거짓말에 대한 대처법 등 아빠들의 육아 관련 주제별 네트워킹, 아빠와 함께 1박 2일 별자리 캠프와 가을 소풍 등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사진전은 아빠단에 참여한 아빠들이 육아하는 행복한 모습, 혹은 아빠가 직접 찍은 우리 아이 모습을 주제로 선별한 사진 30점을 비롯한 전체 활동사진 포토월, 그리고 아빠단의 아빠들이 제시하는 아빠육아 노하우가 담긴 판넬 10여 점이 함께 전시되며, 이를 통해 아빠단 모임의 취지와 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아빠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단 운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글 **김민중** 명예기자

## 아이들이 펴낸 통일동시집 『평양냉면과 칼국수』

대구다사초(교장 정효석) 4학년 1반 학생들은 11월 20일 김민중 담임교사와 함께 통일주제 동시집 『평양냉면과 칼국수』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학생들이 1년 동안 남북관계와 협력, 북한의 변화, 통일 등에 대하여 배운 소감을 동시에 나타낸 작품집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인 다사초는 학생 통일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국제협력교육, 통일 문예 대회 등 많은 행사를 열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키워 왔다. 이미 책쓰기 동아리가 동시집 『물려주기의 법칙』을 출간해 대구시교육청 출판지원을 받은 다사초는 이번에는 주제를 정해 두 번째 학생 작품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책은 5부로 구성되어 4학년 1반 학생 27명이 쓴 135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북한 음식 먹는 날' 등 주제별로 「북한산」 「마음의 벽」 등 다양한 작품들이 어우러져 있다. 통일되어 만날 북한 친구들을 생각하는 작품들이 많으며 특히 급식으로 북한 음식을 먹은 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소감 등이 아이들의 눈으로 솔직담백하게 표현되어 있어 웃음과 함께 남북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듯하다.



“ 글\_ 박소영 명예기자

### 네덜란드, 학교에 등장한 미스터리 쇼퍼

네덜란드의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오픈 데이(Open day) 행사를 한다. 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학교를 둘러볼 수도 있고, 학교 전반에 대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교육부 산하 교육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인 DUO의 부서 중 교육 리서치 및 어드바이스(Onderwijsonderzoek & Advies)에서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매장에 들러 특정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모니터 제도)를 학교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미스터리 게스트(Mystery Guest)는 학교 오픈 데이에 8학년(초등교육의 가장 마지막 학년) 학부모를 가장해 해당 학교에 관심이 있다고 접근하여 학교 관계자, 학교 분위기, 교육과정 등을 모니터링하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다. 네덜란드는 이런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글\_ 김은성 명예기자

### 고3 수험 생활의 피로를 싹 날리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제9회 인천 미래 인재 양성 마인드 업(MIND UP)' 행사가 11월 29일 열렸다. 여성가족부와 인천광역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매년 이맘때쯤 인천 시내 주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번에도 역시, 그동안 힘든 수험 생활을 해 온 고3 학생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3시간 30분 동안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선 사제동행 참여 이벤트로 전통놀이인 제기차기가 열렸다. 참가 학교들의 대표 학생과 교사가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함께 자웅을 겨루었다. 참석한 모든 학생은 풍선을 흔들면서 자신의 학교를 응원하였고 선생님과 제자가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남고부와 여고부로 각각 나누어 진행한 이 행사에서는 인천제일고와 신명여고가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후에 있는 연예인 공연 및 공감 타임 '청소년 시절 그뻐 그랬지'에서는 가수들의 신나는 무대 공연이 펼쳐졌고, 중간마다 인터뷰와 학생 참여가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공감과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 글\_ 이재찬 명예기자

### 서울교육청, 빅데이터 시대 인성교육 논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1월 19일(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9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시민 및 인성교육 관련 전문가 등 200명 내외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따뜻한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와 소통, 공감과 협동, 존중과 배려를 실천한다. 둘째, 인성교육이 학교 전담에서 가정과 마을이 함께 참여한다. 이로써 가정의 인성교육의 기능이 회복되고 학부모의 인성중심 소통 역량이 강화된다. 셋째, 덕목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추진한다.

과거와 달리 세상은 변했다. 융합과 통섭이 요구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환경 변화를 도외시하고 학생들에게 선례답습의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이념인 자·덕·체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 글\_ 박은희 명예기자

### 전교생 하이파이브와 포용으로 행복한 등굣길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매일 하이파이브로 인사하며 등굣길 학생들을 맞이하는 학교! 교내 거의 모든 교사와 학부모가 전교생을 안아주는 '아포날(아름다운 포옹의 날)' 행사를 실천하는 학교! 부산 수영구 한바다중학교(교장 정도건)의 이야기다.

지난 10월 17일에는 한바다중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김영찬 지휘자와 함께 멋진 연주회를 시작하며 아포날 행사를 시작했다. 이색적인 등굣길 행사로 동네 주민들과 인근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거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구경하는 진풍경이 이루어졌다. 이날에는 학부모가 학생들을 위해 아름다운 문구가 적힌 간식을 정성껏 포장해서 나눠 주기도 했다.

무더운 여름에도 살을 에는 듯한 추운 겨울에도 교장선생님과 학생생활부장 선생님은 전교생에게 하이파이브를 진행한다. 그리고 전교생 중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안아주는 아포날 행사에 교내 거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 글\_ 조동욱 명예기자

### 함께 탐구하며 해결하는 '수학 런닝맨' 축제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인 경북 함창고등학교(교장 김희근)는 2019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일이었던 지난 11월 15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수학런닝맨 축제:풀자마자 뛰어라!'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 팀을 이룬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협동심과 창의력 등을 신장할 수 있는 세부 활동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축제에는 함창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총 20개팀(40명)이 참가하였으며, 보드게임 미션, 공간지각능력 미션 등 총 6개의 미션을 정해진 시간 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math꺼워' 동아리 학생들은 문제 선정부터 행사 당일 각 미션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감독관 역할까지 완벽하게 수행하여, 행사가 더욱 빛을 발하였다. 수학동아리 'math꺼워' 지도교사인 함창고등학교 배기복 교사(수학)는 앞으로 런닝맨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참가 대상을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희망 학생들까지 확대하여 이를 상주의 새로운 수학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 글. 김민규 명예기자

### 장애학생들의 이색 직업체험의 날

지난 11월 21일 충북 제천의 청암학교(교장 국인숙)에서 '제5회 청암 일자리 탐색 직업체험의 날'이 열렸다. 이 행사는 청암학교 전공과가 장애학생들에게 직업의심을 심어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다. 청암학교 전공과는 요즘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곤충 관련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을 조립하여 지역의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암학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장애학생들이 각 부스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것이다. 제천, 충주, 단양, 괴산 등 인근 지역에서 방문한 120여 명의 학생들은 곤충사육사, 식용곤충요리사, 자동차부품조립기사, 바리스타, 공예가 등 직업군으로 준비된 부스에서 체험을 하였다. 미래 먹거리고 주목을 받고 있는 식용곤충 요리사 부스에서는 말린 식용곤충을 이용하여 카나페 등의 요리를 직접 체험해보고 맛보기를 하였다. 장애학생들은 이날 행사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는 소중한 경험을 가졌다.



“ 글. 백희 명예기자

###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다가감 수업'

서울염동초등학교(교장 김재환) 5,6학년 학급에서는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기뻐했구나, 그래 슬펐을 거야하며 친구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의 소리로 웃음꽃이 핀다. 저마다의 감정카드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친구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다가감(다양성+감수성)' 수업이다. 이 수업은 첫째, 다양성(다양성 이해와 존중) 둘째, 관계성(공감, 소통, 협력) 셋째, 보편성(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으로 진행된다. 언어, 문화 등 모든 것이 낯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감정카드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준다. 또한, 편견, 차별에 대한 생각을 풍선에 붙여 터트리거나 날리기도 하고, 컵 쌓기로 친구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이 수업은 서로 다른 너와 나를 소중히 여기며,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공감하는 시간으로 교실에 마음의 행복을 전하고 있다.



“ 글. 양지훈 명예기자

### 일반고 개별화 교육과정 '다함성 프로젝트'

지난 11월 4일(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2018 안산혁신교육지구 사업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청이 주최하고 안산혁신교육협력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발표회는 지역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교사, 학생,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2018 일반고 개별화 교육과정 '다함성 프로젝트'는 안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 능력, 지역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육동체가 함께 편성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진로 희망 계열 다양화를 위해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진로 희망 계열을 개설하고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인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주문형 강좌'도 열었다. 올해에는 '다함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반고의 교육과정 특색화를 통한 학생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 글. 조원표 명예기자

## 2018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활동공유회를 한해 따뜻한 교육이야기로 풍성... 전국 방방곡곡 행복한 소식 배달



2018 교육부 월간매거진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활동공유회가 지난 12월 7일(금)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교육부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전국방방 곡곡에서 펼쳐지는 행복한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명예기자들과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했다.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준 전국의 명예기자들을 격려하며 우수 명예기자에 대해 교육부 장관 표창장을 전달했고,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단장은 초청 강연으로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의 중요성과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순이 <행복한 교육> 편집장은 행복한 교육이 걸어온 발자취를 소개했으며, 전남 부산초 교직원 문승욱 명예기자는 그간 명예기자 활동을 해 온 소감을 발표했다. <한겨레21> 전정윤 사회부 팀장은 공감 가는 기사작성법을 특강했으며, 박영균 소스팜 이사의 <행복한 교육> 웹진 개편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이날 행사 중 인상 깊었던 것은 2019 행복한 교육 개선을 위한 분임토의였다. 전국에서 모인 명예기자인 만큼이나 열정도 뜨거웠다. 조별로 2018년 활동을 되돌아보며 양질의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이 제시됐다.

2019년에도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의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행복한 교육이야기가 전 국민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②

#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



1

‘교육기부로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자.’ 어린이, 청소년들이 꿈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한 데 모은 교육기부 박람회가 열렸다.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11월 22일(목) ~ 25일(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의 장을 학교 밖으로, 온 마을로 확장시키고 있다. 교육기부를 통해 체험의 기회를 얻는 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집계를 시작한 '11년에 2만여 명이던 수혜 학생 수는 '17년 572만 9천여 명(누적합계)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12년 1,085종에서 '17년에는 4천여 종으로 확대되었다.

1.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막식 행사
2. 핸즈온테크놀로지의 '소프트웨어 놀자'
3. 국립등산학교의 암벽 등반
4. 진로상담-적성검사-역량 진단 후 적합한 부스를 안내하는 '컨설팅존'



## 150여 기관 참여, 다양한 체험 기회

이번 박람회는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 아래 기업·공공기관·단체 등 150여 개의 기관이 교육기부 성과를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기부와 함께 하는 영화제’, ‘꿈의학교 공연’, ‘연극으로 배우는 경제이야기’, ‘개그드림콘서트’, 초등 인성뮤지컬 ‘아사 박문수, 학교 출두요’, 고교 패션 컬렉션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다.

‘교육기부 테마관’에는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기부공간, 기부주체 등을 고려하여 학교, 학교 밖, 온라인, 무한상상마을, 신규 교육기부, 대학생 교육기부 등 6개의 테마로 구성하였다. ‘온마을 교육기부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분야별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 전시공간으로써 과학, 환경·에너지, 안전·의료, 인문·역사, 금융·경제마을 등 11개의 마을로 체험부스를 구성하였다. 그밖에도 교육기부 성과를 홍보한 ‘미디어월’을 비롯해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적성검사 후 역량 진단과 적성에 부합한 전시부스를 안내하는 ‘컨설팅존’도 함께 마련되었다.





5



6

**꿈에 날개를 달아 볼까?**

미용조리마을 한국음식문화원의 요리체험에 참여한 경기 오마초등학교 양서현·신모진(6학년) 학생은 “서울컨벤션고교 언니 오빠들과 매콤한 제육, 달콤한 불고기, 환상적인 잡채를 이용한 3가지 주먹밥을 만들었다.”며 “주먹밥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포장하는 방법도 신기했다. 처음 만든 주먹밥인데 어떤 맛일지 기대된다.”고 말한다.

수학문화도서관의 찾아가는 수꿈이 수학버스 체험을 막 끝낸 성포중학교 이예선·이교은(1학년) 학생은 “버스 안에서 수학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내내 신기했다.”며 “피타고라스 정리 수조나 톱니바퀴로 배우는 배수 등 수학자 실험실에서 다양한 수학 원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수꿈이 수학버스는 수학문화 콘텐츠를 탑재한 이동형 수학체험공간으로 수학교육문화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 수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학버스 안에는 40여 종의 수학교구를 가지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은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다. 서울신도고 문지운 학생은 “아시아나항공 부스에서 올림머리를 하고 승무원 복장을 한 채 위킹을 해봤다.”며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승무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했던 기억이 났다. 실제 경험해보니 승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7



8



9

- 5. 한국음식문화원의 요리체험
- 6. 경북대병원 물리치료 체험
- 7. 어디든 찾아가는 수꿈이 '수학버스' 실내 모습
- 8. 한국드론교육협회의 드론 체험
- 9. 3년 연속 교육기부 대상에 오른 (재)꽃과어린왕자의 'एको롱통'
- 10. 아시아나항공의 스튜어디스 체험



10



**“교육의 장을 넓혀주는 교육기부”**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기부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체험활동 제공기관과 학교를 연결해 왔다. 교육부는 '11년 26건을 시작으로 '17년까지 101곳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왔으며, 이날 개막식에서도 교육기부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KT, CJ CGV,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산교통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동안 현장에서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42개 기업·기관·개인 등을 격려하는 '제7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교육기부 대상을 받은 6개 기관(공항공철도(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융감독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재)꽃과어린왕자)에게는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 현판을 전달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교육기부 포털(www.teachforkorea.go.kr)을 통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날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장을 넓혀주는 교육기부가 꼭 필요하다”며, “그간 아낌없이 재능을 나누어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교육기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나가 많은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㉞

## 기술과 교육의 만남 : 에듀테크

면대면 학습을 통한 정의적 학습, 감수성 학습, 관계학습 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주어진 내용을 학습자 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교육은 만남이다.

만남을 통해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의한 방법이 우선되었다. 때로는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약간의 기술적 보조수단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주된 학습의 틀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통해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소위 면대면(face to face)러닝으로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AI형 학습기술이 도입되고 심지어 AI형 로봇블록이나 온라인상의 백과사전 활용 그리고 AI 보조교사 등의 등장으로 기술과 교육이 분리되어왔던 종래의 학습방법이 이제는 온전히 기술과 교육의 만남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기술과 교육의 만남은 에듀테크(EduTech)라는 개념으로 교육현장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에듀테크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교육내용이 융합되는 융합형 교육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기술과 교육의 만남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견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방법의 대변화는 전통적 캠퍼스 중심의 학습체제가 혁명적으로 바뀌어 장소와 시간과 내용을 초월한 학습자 주도형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에듀테크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어떻게 현명하게 가장 값진 교육으로 승화시키느냐는 에듀테크를 무슨 목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한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에듀테크'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이후 필자가 20년 전부터 예견해왔던 '3무(無)학교'인 '캠퍼스 없는 학교, 책 없는 도서관, 교사 없는 강의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에 도달했다. 에듀테크의 산업은 2020년경에 28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에듀테크의 활성화는 각 과목의 융합형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예술과 수학을 합한 STEAM 교육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듀테크는 면대면 학습에서 갖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 전수에서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에듀테크의 정보기술을 결합한 학습을 통해 경험학습과 액티브러닝이 가능하고 많은 상상력과 문제해결력을 기계에 담아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이었다고 본다면 에듀테크의 도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교육혁신이나 아니면 교육르네상스이나에 대한 논쟁도 야기시킬 수 있는 기술과 교육의 접목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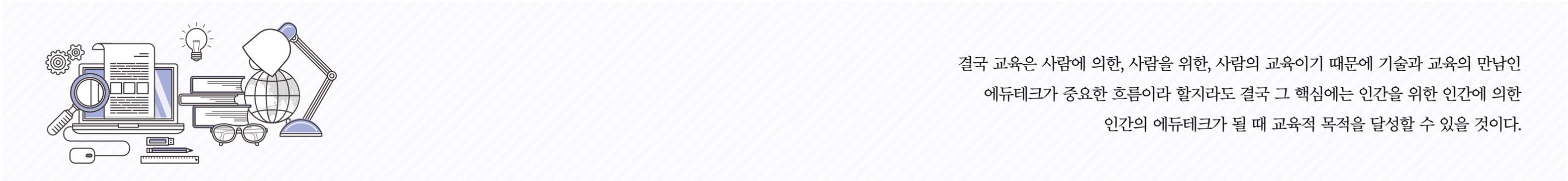
### 교육과 기술의 접목은 이 시대의 트렌드

에듀테크는 4차 산업사회에서의 주된 교육수단이 될 전망이고 공급자 위주의 학교관에서 학습 수요자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더욱더 에듀테크의 불가피성은 부인할 수가 없다. 에듀테크는 어떤 목적에서 어떤 교육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에듀테크는 종래의 교육 중심 또는 교사 중심의 체제에서는 하나의 교육 보조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학습자의 측면에서 학습 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학습자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에듀테크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점에서 학자에 따라 견해에 따라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교사가 활용하게 되면 교육 보조수단이나 제한된 학습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된 교육도구가 되고 심지어 맞춤형 교육수단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고 변화를 주도하는 계획된 학습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교육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고 그 내용을 내면화하고 환경과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방법과 교육지원체제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불가피했고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등이 주된 산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4차 산업사회에서의 교육방법과 교육지원체제 또한 이러한 시대적 기술 변화와 불가피한 관계 속에 있다.





결국 교육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이기 때문에 기술과 교육의 만남인 에듀테크가 중요한 흐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핵심에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에듀테크가 될 때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직업 생태계의 대변화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만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지주의적 교육의 틀을 벗어나 경험과 체험과 실제 문제해결능력을 도울 수 있는 기술과 교육의 만남은 중요한 이 시대의 트렌드임에는 틀림이 없다.

### 에듀테크의 장단점

에듀테크에 대한 필요성과 또 이 필요성에 따라 교육에 활용되어질 때 내포할 수 있는 장단점을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장점을 보면 에듀테크는 획일화된 교과과정(Curriculum)과 획일화된 교육과정(The Process of Education)을 통해 담고 있는 내용을 암기하고 습득하는 형태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학습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교실 중심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에듀테크는 여러 형태의 기술과 교육의 만남 형태를 통해서 통합적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능형 로봇블록을 통해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온라인형 백과사전을 통해 창의적 의견 개진이나 에세이 그리고 제안 등에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도 있고 실제로 액티브러닝을 통해 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은 자기주도적 반복 학습을 통해 스스로 에듀테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기술과 교육의 만남)을 자기주도적으로 재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다양한 문제해결능력과 연관된 조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듀테크는 AI형 에듀테크가 일반화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나 단순한 공식이나 단순한 사실에 대한 것들도 쉽게 AI형 에듀테크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는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과 사실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통합적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AI형 에듀테크의 장점은 학습자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동기가 높지 않은 학습자에게는 여전히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에듀테크는 단순히 교과과정 내의 내용만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확대된 교육도 가능할 수 있다. 4차 산업사회에서 중요 시 여기고 있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선호하는 에듀테크의 기술을 발전시킬 경우 기술과 교육

의 만남이 교육 르네상스를 가져다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에듀테크가 모든 학습자에게, 모든 교육 내용에 만능은 아니다. 에듀테크는 소프트웨어인 콘텐츠를 담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콘텐츠 없이 호기심만 유발하는 하드웨어 위주의 에듀테크가 될 경우 교과면에서 매우 한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면대면 전통적 교육방법과 에듀테크 활용 교육방법이 병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매우 가까운 장래에 AI형 에듀테크가 교육현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리라고 예견된다.

이러한 흐름은 기계와 사람의 만남 형태가 될 것이고 주지주의적 교육을 능가하는 많은 학습량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면대면 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놓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면대면 학습을 통한 정의적 학습, 감수성 학습, 관계학습 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주어진 내용을 학습자 주도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 교육적 에듀테크가 절실한 시대

에듀테크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쟁점을 지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에듀테크를 제대로 활용하여 기존의 교육의 틀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에듀테크는 맞춤형 학습이나 학습자 주도형 학습이나 국경을 초월한 학습 그리고 기존 교육 체제를 뛰어넘는 학습체제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여겨진다. 어떻게 보면 학습혁명(Learning Revolution)이라 지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래의 기술과 교육을 이분화했던 사고에서 교육과 기술의 만남을 통해 '교육적 에듀테크(Educative Edutech)'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 생각된다.

결국 교육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이기 때문에 기술과 교육의 만남인 에듀테크가 중요한 흐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핵심에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에듀테크가 될 때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도 캠퍼스 없는 교육이 일반화 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위해 학습을 하고 학습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에듀테크와 함께 어떻게 학습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는 학습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유된 가치와 교육에 대한 소원이 함께 담겨질 때 바람직한 에듀테크의 활용이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학습자들의 '학습 정체성(Learning Identity)'과 관련된 문제로서 AI형 에듀테크나 AI형 교사는 학습의 보조수단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활용할 때 학습자의 학습 정체성과 함께 에듀테크 시대의 도래는 교육 르네상스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㉔

## 2018 한-OECD 국제 세미나 교육, 사회 이동 사다리 역할 못 해... 사회 혁신과 함께 나아가야



오늘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공부를 한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방과 후 시간을 공부에 할애한다.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는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떤 공부를 하는가? 굳이 이에 대한 답을 듣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이 하루 중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이며, 이 아이들이 하는 공부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이다. 그렇다면 대학 졸업장은 우리에게 보다 질 높은 삶을 보장해 주는가? 안타깝지만 대학을 위해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음에도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다. 한 가지 보다 확실해진 것이 있다면 30년 전에 비해 이 질문에 답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특히 대학 졸업자의 실업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공동의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며, 미래 보장이 불투명한 대학 입시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우리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 ● 한국의 교육 팽창과 평등

「2018 한-OECD 국제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지난 11월 29일 ‘교육 형평성과 삶의 질: 현실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교육부는 1999년부터 매년 다양한 교육 이슈를 주제로 ‘한-OECD 국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과 OECD와의 교육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 정책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8 한-OECD 국제 세미나」는 ‘교육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말에 의문을 표하는 현실에서 공정성(Fairness)과 포용성(Inclusiveness)을 기본 전제로 하는 ‘교육 형평성’이 여전히 유의미한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였다.

먼저, 첫 번째 기조 강연에서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미래연구본부장은 ‘한국의 교육 팽창과 평등’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교육 팽창 과정과 계층 분포 변화 양상을 통해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 형평성의 주요 이슈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청년 실업, 사회 양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근원을 교육 불평등 또는 교육 정책의 문제로 돌리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과 사회의 역할이 상호 작용하며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 선순환 구조에서 교육은 학생을 기존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잘 갖추도록 길러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사회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길러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기조 강연에서 파울로 산티아고 OECD 교육정책자문실행과장은 ‘OECD 관점에서 본 교육 체제에서의 평등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교육에서의 성평등과 교육기회의 공평성 문제를 OECD 교육 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 형평성 관련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의 공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대학 교육에서 사립교육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것과 개인의 교육비 부담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 ● 네덜란드·일본·인도의 교육 형평성

다음으로, ‘글로벌 사회에서의 교육 형평성’을 주제로 네덜란드, 일본, 인도, 한국의 교육 형평성의 현황과 이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네덜란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철저한 학교 분리 문제, 형평성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문제, 조기 추적 시스템 등이 형평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비슷하게

교육의 사회이동 사다리 역할이 무너진 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와 학습 동기의 차이가 큰 문제, 가정배경과 학업 성취 간의 밀접한 관계 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유치원비 지원, 고등교육 장학금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비의 공적 재원 비중 증대와 교육 재정 확대 등이 향후 과제로 제안되었다. 인도의 경우에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업 성취, 사회정서학습, 고등교육 훈련 및 진로 상담을 강조하는 '교육 리더십을 위한 피라말 재단'의 교육적 접근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OECD에서 발표한 '2018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EAG) 2018)'의 성별,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형평성의 이슈를 살펴보았는데 OECD 회원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교육 형평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의 교육 영역별 형평성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육 영역별 형평성'을 주제로 ▲교원 및 교직 환경에서의 형평성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통한 형평성 구축 ▲PISA와 PISA-D에서의 교육의 질과 형평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인 '우리나라 교원 및 교직 환경에서의 형평성'은 OECD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전문성에 대해 자율성, 네트워크(연결망), 지식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교사들은 네트워크(연결망)는 강하나 자율성과 지식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사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정책이 제안되었다. 두 번째 발표인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통한 형평성 구축'은 OECD 교육 2030(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 조사한 분석 결과와 이에 바탕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교육과정의 적용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학습 환경의 변화가 교사 간의 협력과 교사들의 학습 커뮤니티 활동을 촉구한다고 보고하였다. 세 번째 발표인 'PISA와 PISA-D에서의 교육의 질과 형평성'에서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우리나라가 성취해 온 우수한 결과와 평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에서 시행한 PISA-D(PISA for Development) 사업을



교육이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 형평성은 교육 혁신과 사회 혁신의 두 축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소개하였다. 개발도상국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된 캄보디아 PISA-D 사업은 캄보디아의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를 평가함으로써 캄보디아의 교육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 교육 형평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이상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국제적 관점, 교육학적 관점, 양성평등 관점, 사회학적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제적 관점에서는 아일랜드의 교육 제도 및 정책 소개와 함께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소득 형평성과 교육 형평성을 비교하며 우리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모든 이에게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현실에서 교육의 공적인 특성과 교육이 갖는 사회계층 이동과의 관계는 교육 형평성을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가치로 만들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교육과 사회의 역할과 기능 및 이 둘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는 STEAM 교육 및 관련 진로에서의 성차별이 철폐되어야 할 필요성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 분야 협력 시 개도국의 양성평등 구축에 우리나라가 힘써야 함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교육 형평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밀접한 관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되었으며 이 두 부문에서의 형평성이 함께 추진될 때 실효성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 ● 교육과 사회, 두 축의 혁신이 필요

「2018 한-OECD 국제 세미나」의 여러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듯이 교육은 오롯이 교육 자체로서만 기능하지 않는다. 많은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들이 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교육은 사회의 변동을 견인한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는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교육의 성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미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이 더 이상 사회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 형평성은 교육 혁신과 사회 혁신의 두 축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 우리는 비로소 교육의 성과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육에 쏟는 열정과 시간은 향후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②



## 서울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다 “우리가 큐레이터~”



전교생이 46명인 작은 학교 학생들이 서울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전교생이 작품 제작에 참여했고, 전시회의 구상과 기획, 큐레이팅을 선생님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5~6학년 학생 10여 명이 해냈다. 학생들의 꿈과 미래가 담긴 전시회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

### # 이 상태로는 전시회 개최가 힘들어요

외서초등학교(교장 장용철) 5~6학년 학생들의 ‘서울 토탈미술관에서의 전시회’ 준비가 한창인 여름방학 즈음이다.

“이 상태로는 전시회 개최가 힘들어요.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기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작품을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신보슬 토탈미술관 큐레이터는 아이들이 준비한 작품을 둘러

보고 기획안을 점검하면서 예정된 7월 전시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학생들은 학기초부터 4개월여 동안의 노력과 준비가 한순간 수포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전시회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전시회 개최를 10월로 연기하고, 기획안을 수정하고 전시작품을 추가로 작업하기로 결정했다. 수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 간 의사소통 문제로 가끔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어려움을 참아내며, 다시 처음부터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 # 타임머신 타고 구석기시대로~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 있는 국가사적 458호, 월평구석기유적지를 소재로 스토리텔링 형식의 전시작품을 구성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시대로 가 구석기인들에게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자신의 꿈을 설명하면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내용으로 전시회 주제를 잡았다.

슬로건은 ‘선사에서 미래로’라고 정했다. 학생들은 구석기시대를 상상하면서 새로운 작품들을 고안했다. 구석기시대 마을의 모습을 재현한 3~4미터 크기의 모형(디오라마)과 3~4명씩 협력해 완성한 한국화 작품을 제작해 전시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구석기시대로 시간여행을 간다는 내용의 ‘단편영



## 진로진학궁금증 비켜~ ‘진로뽕뽕’



충남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에게 진로·진학 시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Q&A방식의 진로진학토크쇼 동영상 ‘진로뽕뽕’을 제작해 충남에듀잇슈 및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로뽕뽕’ 1회에서는 중·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차이, 중학생 자녀의 학업역량 측정법, 중학교 학습에서 부족한 부분 보완법을 담았고, 2회에서는 학교알리미 활용,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학, 농어촌 특별전형 등의 내용을 담아 고입을 앞둔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고교 선택과 고입에 관한 궁금증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고입을 앞둔 시점에서 충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실 전명일 교육연구사가 고입 관련 내용으로 매주 1회씩 총 4회 분량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대입 입시일정에 맞춰 학교생활기록부 이해, 수시전형 분석 및 지원전략, 수능 성적 분석 및 정시 지원 전략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정태모 진로진학부장은 “이번 진로진학토크쇼 ‘진로뽕뽕’은 구체적인 진로진학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고교 선택 및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학부모를 위해 천안과 내포에 진로진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서산과 논산에도 진로진학상담실을 개설해 학생·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했다. ㉠

### # 충남도교육청 충남에듀잇슈

<http://cne.go.kr/boardCnts/view.do?m=08&s=news&boardID=20143&boardSeq=2028274&lev=0&opType=N>

### # 유튜브 진로뽕뽕

<https://www.youtube.com/watch?v=iSpINX83P4s&t=11s>



화를 만들어 상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까지 직접 진행했다.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미래의 꿈을 그려 합성한 작품을 전문작가인 홍순명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하고, 지난 6월 다녀온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체험학습의 사진과 동영상도 전시하기로 했다. 책 만들기 교육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책 삽화도 전시목록으로 넣었다.

### # 실패를 이겨낸 경험, 세상을 살아가는 힘 키워줘

지난 11월 26일~27일 이틀간 서울 토탈미술관에서는 외서초 5~6학년 학생 큐레이터(서지희 외 8명)들이 직접 기획·제작·구성한 ‘선사에서 미래로’ 전시회가 성공리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이 지은 ‘유적을 지켜라! 월평탐사대!’ 동화책을 바탕으로 현재 월평구석기유적지를 조명하고 유적지를 계승하고자 하는 활동과 과거에서 미래의 자신과의 만남을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회 오픈 행사에는 외서초 희망동행 오케스트라가 직접 작곡한 월평구석기유적지현정곡인 ‘The old stone intro-ending 1-2-3악장(3~6년 학생, 윤성주 작곡)’ 연주가 진행됐다. 또 5~6학년 학생들이 관람객들에게 직접 작품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김명수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7개월여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배웠고 큰 성취감을 느꼈다.”며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신보슬 수석큐레이터는 “어린 학생들과의 작업은 나에게도 색다른 경험”이라며 “학생들의 상상력과 진지함에 놀랐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과 고등교육의 질 향상

한국 고등교육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는 첫 번째로 2018년 3분기 합계출산률 0.95명이라는 세계 최저 출생률에 기인하는 학령인구 감소,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사회 전망 및 미래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미흡, 셋째는 2010년부터 정부의 등록금동결 및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대학 재정난 가중 등이다.

유럽과 달리 한국은 사립대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높은 등록금을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의 등록금 정책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2010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된 강력한 등록금 동결 및 반값등록금 정책 때문에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즉, 학생 수 감소와 반값등록금 정책이 맞물리면서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부딪혀왔으며, 재정난에서 기인하는 대학경쟁력 약화는 결국 고등교육의 혁신과 질 제고를 통한 대학경쟁력을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은 하드웨어인 쾌적한 교육환경과 재정 지원,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밀레니엄 세대에 적절한 교육방법, 휴먼웨어인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인재상을 어떻게 갖추도록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고등교육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 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과연,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직업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지,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생겨나고, 소멸할 것인지에 대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관심이 많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6년 제조업에서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앞으로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도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으며,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개방과 융합을 통한 초연결사회로 구성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의 물결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어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단순한 조립라인에는 이미 로봇이, 회계서류 양식이나 법률 서류를 작성하거나 판례수집이나 단순한 지식의 암기와 같은 간단한 반복 작업들은 앞으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으

대학 간과 학과 간의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대학연합과 학제도입, 창의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특성화시켜야 한다.

로 진화한 학습능력이 뛰어난 AI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위치기반 기술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로봇, 3D 프린터,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그리고 혼합현실(MR), 자율주행차, 블록체인과 핀테크, 드론 등의 활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그 발전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세계경제포럼은 기술적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세상에 꼭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이라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선정한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능력 10가지와 점점 가치가 떨어져가는 능력 10가지를 제시하였다.

####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능력 10가지

- |                 |                   |
|-----------------|-------------------|
| ① 분석적 사고와 혁신    | ⑥ 복잡 문제 해결 능력     |
| ② 능동적 학습과 학습 전략 | ⑦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
| ③ 창의성, 독창성, 추진력 | ⑧ 감정 지능           |
| ④ 기술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 ⑨ 추론, 문제 해결과 추상화  |
| ⑤ 비판적 사고와 분석    | ⑩ 시스템 분석과 평가 능력 등 |

#### 점점 가치가 떨어져가는 능력

- |                        |                     |
|------------------------|---------------------|
| ① 손재주, 지구력과 정확성        | ⑥ 인사 관리             |
| ② 기억력, 언어능력, 청력, 공간지각력 | ⑦ 품질 관리, 안전 관리      |
| ③ 재무, 자원 관리            | ⑧ 조정, 시간 관리         |
| ④ 기술 설치와 유지보수          | ⑨ 시각, 청각, 연설 능력     |
| ⑤ 읽기, 쓰기, 수학, 능동적 청취   | ⑩ 기술 이용, 모니터링, 조종 등 |

바로 이것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방향이자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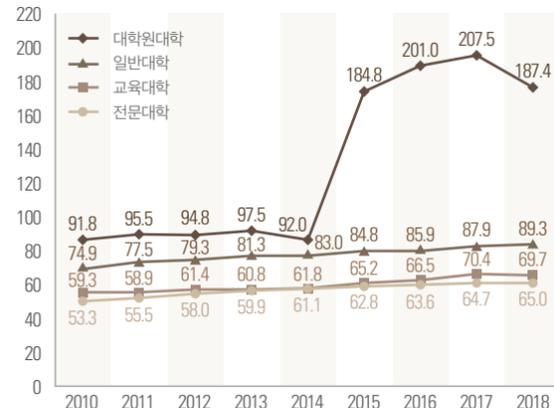
#### 나.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

한국의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 그리고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10년간 지속되어온 등록금 동결은 국내 대학들의 고등교육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쳐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및 대학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교육경쟁력평가에서 국내 대학들의 교육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7년 53위로 떨어졌다.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011년 24위에서 2017년 26위로 하락했으며, 특히 대학시스템 질 부문은 2013년 64위에서 2017년 81위로 급락했다. OECD 교육통계(Education at a Glance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만 1,000달러 중·고등학생은 1만 2,000달러 인 데 반해 대학생은 8,000달러로, 대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재원이 초등학생에 비해 3000달러(약 330만 원), 중·고등학생에 비해 무려 4000달러(약 440만 원)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교육통계를 보면,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교육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표1] 유형별 전임교원 확보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년 교육기본통계' 보도자료, 2018. 8. 29.

교육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공교롭게도 학생 수 감소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표 1 참조>.

OECD 국가 중 사립대학 의존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한국의 공교육비 정부부담은 0.8%이며, 이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0.47%에 불과하여 정부의 고등교육비 부담률을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2% 수준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고등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과연 우리나라에 글로벌 수준의 대학다운 대학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할까? 대학다운 대학이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유럽에서도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할뿐, 교육의 자율성을 100% 보장한다. 그리고 미국 다수의 사람들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대학이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도 국가발전에 대학의 기여도, 특히 사립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며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시 사후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학도 변해야 한다. 교육 4.0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패러다임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등교육의 질을 진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 정부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나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이다.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사학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재정이 자체가 적어 고등교육기관들이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사학 스스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도가 없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적 기능인 고등교육을 사학이 대신 맡아 수행하고 있으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며, 유럽의 국가들은 국립이 대부분이며, 상대적으로 사학비중이 높은 일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경상비에 대해 보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GDP 대비 1.1%로 고등교육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재원의 일부를 전환하여 경상비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내국세의 일정률을 칸막이하여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국·공·사립대학을 포괄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 및 교부하는 틀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우, 산업과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요 선진국들처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시스템 개편에 적극적



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미네르바스쿨이나 에리조나주립대학 등 민간 주도의 인재 양성시스템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융합기반 전공제 온라인 교육방식 수업 등 새로운 교육방식을 통해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대학의 운영과 설립은 불가능하다. 이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학문적 창의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중 평가로 인한 대학의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대학은 대학만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과 플립러닝이나 프로젝트학습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고민해 보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의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대학 설립목적에 따라 어떤 모습의 인재를 육성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사회변화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학을 변화시키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대학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비전 제시와 지역과 대학이 공존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제시된다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대학발전계획은 지자체의 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하고, 기업 인력양성목표,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사업이 반영되어야만 공감과 실효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60%대 대학진학률이 보여주듯이 이제 대학 졸업장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해줄 것이란 공식이 깨져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은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교수자 중심의 교육으로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와 축적되는 지식량을 반복적 학습에 의한 주입식 교육, 대형 강의에 의한 일제식 학습, 단순 암기식 지식 습득으로 감당할 수 없다. 기계학습-딥러닝-강화학습을 거쳐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과 상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사고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이며, 다면적인 사고능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미래사회에서는 현재와 같은 대학은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대학교육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계획과 변화는 대학을 지역과 연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별 주력산업과 대학 특성화 연계는 지역인재 양성 및 사업육성에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융·복합형 교육체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 대학 간과 학과 간의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대학연합과 학제도입, 창의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특성화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가지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학생들은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그동안 처벌 위주의 대책에서 이제는 학생 간 관계 회복 위주의 정책 지원을 위한 '학교장중결제'를 도입하여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들어가며

교육부는 최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1월 1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지난 1차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때 다룬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 이후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제도에 대한 지적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 이해관계자 토론과 일 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문 제는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에 감정 적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중심 의 논의를 통해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문가 중심의 소규모 토론을 통해 정책숙의를 진행할 것 이라고 예고하면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책숙려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껍데기만 남은' 정책숙려제라는 얘 기까지 나온다. 여기에는 이번 정책숙려 제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데 따른 지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난 8월 만 해도 교육부는 참여단 수를 100명 정

도로 고려했지만 최종 참여인원은 3분 의 1에도 못 미친다. 참여단의 구성 역시 '국민 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문가 중심이다. 학생·학부모 참여자 수는 1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학계 나 행정전문가이다.

한편, 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 개선 권고안 도출을 위한 정책숙려제에서 다 른 주요 안건으로는 첫째,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자체중결 여 부, 둘째, 가해학생 조치 중 경미한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 여부 등이다. 경 미한 폭력이란 전치 2주 미만의 신체, 정 신적 피해 등을 말한다. 이번 학교폭력 제도 개선 관련 정책숙려제는 30명의 숙 의 참여단을 구성하고 오리엔테이션 및 한차례 합숙토론을 거친 후 이를 국 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여 그 결과와 통합한 권고안에 따라 정 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그동안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차 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 만,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서는 다음 쟁점들을 차분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첫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12.22)에서는 사안처리 개선 과제의 경우 현재의 사안처리가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하여 가해학생 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저해하고 재심· 소송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학교 내에 서 관련 분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문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인력풀 을 구성, 그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전문가 비중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재심 절차의 경우에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 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 1항에 따르면 피해학생측은 피해학생 에 대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가해학 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동 시에 제2항에서는 가해학생측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7조 제1항 제 8호의 전학조치와 제9호의 퇴학조치에 대해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재심절차 이 원화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을 발생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 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6년 전국학 교폭력 실태조사 연구(푸른나무 청예단, 2017)에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

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가 89%로 나타 나 여전히 일반학생들이 갖는 가해학생 에 대한 두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 들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가 주 는 불이익을 우려한 학부모 간 또는 학 부모와 학교 간의 각종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당 학생 간의 회복과 치 유,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나오며

학교폭력은 평소 남의 일이어서 별 관심이 없다가 막상 본인의 문제가 되 면 전후사정 가릴 것 없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대개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 자 모두 억울해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 다. 그동안 처벌 위주의 대책에서 이제 는 학생 간 관계 회복 위주의 정책 지원 을 위한 '학교장중결제'를 도입하여 학 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학교의 교육적 관계 회복 역할을 확대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 학생부 기재 제도의 경우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커서 오히려 갈등 소지를 안 고 있으므로 조건부 미기재 등의 묘안 에 대해서도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 제'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1. 교육부(2018).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작 -현장 전문가 토론 및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추진-. 보도자료(2018.11.8).  
2. 교육희망(2018.11.08). 교육부, 학교폭력제도 개선도 정책숙려도 시작.  
3. 박윤기(2018). 학교폭력의 개선방안 연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4(4), 65-84.  
4. 박주형(2018).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연구. 주제발표 2018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5. 베리타스알파(2018.11.08). '학폭제도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실시. 10일부터 에듀인뉴스(2018.11.08). 또 숙려제 카드 꺼낸 교육부..10일부터 '학교폭력 정책숙려제' 돌입  
6. 이성숙(2018). 학교폭력! 갈등에서 조정으로의 변화. 현장사례. 2018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7. 이윤미(2018).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연구에 대한 토론문. 현장사례. 2018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8. 정이근(2016).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병과 가능성과 적용상 문제점 검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10(2), 349-370.  
9. 조정실(2018).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방안. 현장사례. 2018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2018).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연구자료 CRM 2018-131. 2018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2018.7.12).  
11. 한국일보(2018.11.08). 정책숙려제, 무늬만 국민참여...  
12. 학부모뉴스24(2018.11.11).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 교육과 예방 그리고 회복이 선순환하는 학교폭력 제도

### 가해학생 배제와 사후 대책 중심

2000년대 이후 학교폭력이 심각한 교육 문제로 인식되면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도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후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공유되면서 학교폭력에 관한 논의와 개선이 있었다.

우선 학교폭력의 범위가 성폭력,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사이버따돌림으로 확대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바로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적 접근을 강화하였다. 특별히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시·도, 시·군·구 그리고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을 가해 학생에 대한 배제와 사후 대책 중심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구조적인 원인과 예방교육과 조정 중심의 모델 그리고 회복적 해결을 모델로 하는 제도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해결 방식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구별, 예방 교육의 구체화, 지역 단위의 해결 노력, 교사의 권한과 재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폭력 제도 개선이 가해 학생에 대한 배제와 사후 대책 중심으로 구성되면 학교폭력의 원인과 발생간의 연쇄고리에서 가장 지엽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하게 되고 이는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적, 징계적 모델로 학교폭력을 개선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 해외사례로부터 시사점

학교폭력 문제는 특정 지역,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학교폭력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다양한 학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자 2004년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OECD 콘퍼런스에서 학교 왕따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CD 네트워크(OECD Network on School Bullying Violence)가 조직되어 학교에서의 소외 및 학교폭력에 관한 경험, 조사연구 그리고 이를 해결할 효과적 실천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다양한 학

교폭력 사안에 협력하기 위한 플랫폼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각국의 학교폭력이나 학교 위기가 해당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육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풍토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각 국가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풍토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동시에 협력해나가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총체적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다른 나라들은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폭력에 대해서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 교사의 감정노동과 내적 부조화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 마련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의미있는 논의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해외사례처럼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 현실과 사회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풍토를 이해하고 학교의 공동체적,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교사들의 사안처리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이해이다.

지금의 사후 대책중심의 학교폭력처

리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동안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경험한다. 우선 학교폭력 감지 및 인지 단계에서 교사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감시자로서 교사는 학생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살피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단계에서는 유통업계 중매인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조사 단계에서는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와 같이 교내에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심문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 및 결과 통보 단계에서는 학교에 제기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가 부과된다. 이때 교사들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개인적 감정과 판단이 다를 지라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 결정 사항 및 추후 지도 단계에서 교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교사들이 학교폭력 처리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경험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할 교육활동에서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들, 생활지도에서 학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과 같이 무질서에 가까운 혼돈상태와 같은 내적 부조화(internal dissonance) 상태를 경험한다. 이러한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의 부정적

인 경험은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에 대한 논의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딜레마 상황과 내적 부조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에 비취볼 때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모델을 벗어나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회복의 선순환 체계 확립

학교폭력 정책의 목적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예방교육 그리고 조정과 회복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통합적인 관점이며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면서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처리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경험하면서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들, 무질서에 가까운 혼돈상태와 같은 내적 부조화(internal dissonance)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폭력 제도 개선이 교육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㉞

# 학년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한 해가 끝나갑니다. 지나온 시간이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보다 훨씬 적게 남았습니다. 서서히 올해 학생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겠지요. 그러려면 먼저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우리 교실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교실로 기억하는 게 가장 멋지겠지요. 아이들과 함께한 1년 동안 이래저래 말썽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았겠지만 마지막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면 오래도록 아이들은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기억해 준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해보실 만한 따뜻한 교실 놀이 소개해볼까 합니다.



##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교실 놀이

### 1 고구마 구워 먹기

고구마는 뭐니 뭐니 해도 겨울철 최고의 간식이지요. 고구마를 열 개만 사도 아이들이 여럿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냄비에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아이들과 나눠 먹어보세요. 물론 원칙적으로 교실에서는 가열하는 전열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지요.



### 2 크리스마스 이야기책 만들기

프로젝트 학습으로 미술, 국어, 창체 등을 연계하면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국어 시간에 쓰고, 미술 시간에 이야기책에 들어갈 삽화를 직접 그려보게 합니다. 창체 시간에는 이야기책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보게 합니다. 다 제작한 이야기책은 크리스마스 전에 함께 감상합니다.



Three horizontal lines for notes, followed by a section with three more horizontal lines, and another section with three horizontal lines.

### 3 크리스마스 네일아트 하기

미술 시간에 매니큐어를 가져오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관련 도안을 보여주고, 네일 아트를 아이들과 함께 해보세요. 짝궁과 함께 네일아트를 해보게 하면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손톱에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도 서로 집중해서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눌 수 있지요.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서먹했던 아이들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난 네일아트는 서로 보여주고 감상합니다.



### 4 꿈 상자 만들기

예쁜 색지에 비전을 꼼꼼하게 써보게 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함께 비전을 써 보고 종이를 굵게 접습니다. 접은 종이를 투명한 반찬통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비전상자를 들고 나가서 학교 운동장 구석에 깊이 묻습니다.



### 5 보물지도 만들기

비전 상자를 땅에 묻고 난 다음 아이들과 보물지도를 만들어보세요. 우리 반 꿈이 보물로 묻힌 장소를 나타내는 보물지도를 그려보게 하면 아이들이 몹시 재미있어 합니다.



### 6 선생님과 부모님께 편지쓰기

한 해 동안 열심히 정성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편지를 쓸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따뜻하게 지도해주시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전담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엽서나 편지를 짧게 써보게 하시고, 부모님께 쓴 편지는 낭독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정말로 따뜻하고 몽클한 시간이 된답니다.



12월은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아이들 마음은 추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보세요.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는 경험을 해보게 하시면 두고 두고 따뜻하게 그 순간을 기억한답니다.

선생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㉞

## 세 아이의 성(性) 고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시간이 되자 더러는 졸고 더러는 낄낄거리고 더러는 시큰둥했다. 그 후 하나둘씩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이 나타났다.

### 첫째 아이

한 아이가 찾아와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음란한 상상을 하면서 자위를 해요. 안 하고 싶어도 자꾸 하게 돼서 죽을 지경이에요. 어떡하죠?” ‘운동하기, 공부하기, 잠잘 때 이불 밖으로 손을 내놓기……’ “그거 다 저한테 효과 없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 자주 결심을 어기고 이렇게 타락하니 저라는 높은 구제 불능인가 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면서 눈물을 보이다가 급기야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상담선생님이 컴퓨터로 솔트라인(salt line)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이 소금선이 육지로 올라오면 주변이 황폐해지듯 죄책감 없이 자위를 하면 앞으로 성개방에 이어 성문란이 올 수 있어. 소금선이 바다로 내려가면 어업이 망가지듯 성을 괴물로 여기면 사랑하는 힘마저 망가질 수 있어. 하지만 소금선이 적절한 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풍부하듯 네가 자위한 후 괴로워하면, 얼핏 보아 불안정한 것 같지만 언젠가 성에 대한 균형감을 얻을 수 있어.”

이 아이는 적절한 죄책감과 큰 순수성을 가지는 특별한 심정 상태 즉 묘심(妙心)을 얻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아이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집도 지어주고 선교도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과 건축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 둘째 아이

다른 아이가 와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자위를 많이 해요. 하루에 5-6번씩 1주일 하기도 해요. 마지막엔 성기가 뿌리까지 아프고 정액도 안 나와요.” “자랑하려는 건 아닐 테고, 뭐가 문제니?” “이러다가 임포(impotence)의 줄임말; 성교 불능 또는 발기부전)되는 게 아닐까요?”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시니?” 아이가 눈동자를 좌우로 허둥거리면서 말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자위 조절이 안 되는데 어머니는 왜 묻느냐고? 사랑하는 사람이 소멸한 후에 사람들은 알코올 같은 물질에 매달려 위안을 얻으려 하다가 물질 중독에 낚인다. 이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홀로 남은 아들이 포르노를 틀어놓은 공부방에서 자위중독에 빠졌다. 엄마의 근황을 물어본 것은 엄마라는 조절자가 사라진 후에야 아이들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상담선생님이 엄마처럼 아이를 챙겼다. 자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녁에는 학원 시간표를 짜주었고, 방지하던 진로계획을 만들었고, ‘웃기는 털렁이’로 별명 붙은 이미지를 바꾸게 했다. 자위 횟수를 줄이는 계획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 전반에서 조절능력을 챙겨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후 아이는 자위에서 진로 쪽으로 에너지가 옮겨지면서 공부며 친구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고, 어쩐지 좀 성숙한 느낌이 들었다.

### 셋째 아이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와서 말했다. “애가 학원에서 여자 동창의 치마 속을 찍어서 여럿이 돌려봤어요. 결국 그 집 아빠가 노발대발하면서 신고했어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재판까지 갈 것 같은데, 그 사이 애는 여기 입학했고요. 결국 학교에서 알면 처벌받고 내신 성적에 문제가 생기겠죠?” 상담선생님이 “중학교 때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인 데다 이곳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진 않습니다.” 하자 두 사람은 안도하는 빛이 역력했다. 대안학교에 피해 있거나 캐나다에 사는 이모 집에 전학을 보내서 처벌을 면한 후 다음 해에 슬쩍 돌아오는 수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다시 어머니가 말했다. “애는 집에 오면 문 닫고 들어가서 포르노를 봐요. 이걸 어떡하죠?” 아들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까 그건 장난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남자라면 다 봐요.” 하고 뭘 그래 하는 표정으로 엄마 어깨를 다독였다. 어머니가 격분하면서 “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보지 말라고 했어! 난 그게 싫단 말이야! 니 머리가 다 썩는 것 같아.” 하고 외치자 아이가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알았어. 안 볼게.’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입발림 말이었다. 둘 다 여학생의 상처는 알고 하지 않았고, 엄마는 자기 아이만 생각했고, 아이는 범죄에 대한 죄책감은 없고 합리화를 넘어서 당연시하는 태도였다. 선생님에 대한 예의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고, 갈 길이 먼 아이구나. 상담선생님도 머리가 아픈 하루였다. ②

## 마무리의 자세와 시작을 맞는 자세

한 해가 끝나가고 있다. 이 해가 끝나면 어떤 사람은 대학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환갑을 맞고, 어떤 사람은 퇴직을 한다. 우리는 이처럼 탄생과 소멸 사이의 시간을 토막 내어 만들어 놓은 매듭, 이를테면 입학과 졸업 같은 매듭을 매년 통과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의 탄생과 소멸이란 사건은 흔하디흔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만은 그 사건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가 뜨고 지는 일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생명체의 탄생과 소멸에 대해 특별한 인문적 의미를 부여하고 탄생과 소멸 사이에 성장과 노쇠의 시간을 다시 설정하면서 다양한 인문적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인간은 시작과 끝을 짐작하기 어려운 우주적 시간 안에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시간의 매듭을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고 미래의 시간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인간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좀 더 품위 있는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다.

### 의연하게 맞이하는 시작과 끝, 이형기의 시 「낙화(落花)」

이형기의 시 「낙화(落花)」는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할 어떤 시간의 매듭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시의 첫머리는 평이한 언어로 메시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느끼게 만드는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철 맞춰 떨어지는 꽃을 매개로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끝내는 데에는 반드시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되풀이 강조한다. 예컨대 때를 맞춰 사라지는 꽃잎들이 그렇지 않은 꽃잎들의 지저분함에 비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혹은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머지않아 열매 맺는/가을을 향하여/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는 시구에서 보듯 좀 더 노골적으로 다음 세대의 탄생을 위해서는 지금 세대의 사라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 강조는 되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별의 아픔, 사라지는 것의 고통이 나의 성숙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의 사랑, 나의 결별/샴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형기의 「낙화(落花)」는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일에서 시작과 끝을 어떻게 의연히 맞이해야 하는가를, 떠날 때의 아픔과 아쉬움과 섭섭함 등의 감정 앞에서 어떻게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 경건하고 정성스런 모심의 자세, 조병화의 시 「의자 7」

반면에 조병화의 시 「의자 7」은 새로운 시작, 다음 세대의 등장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 너무나 쉬운 언어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 시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시구에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지금 어드메쯤/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그분을 위하여/묵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겠어요”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시구는 의자의 다음 주인을 위해 우리가 경건한 모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계시옵니다’라는 경어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성스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병화의 「의자 7」은 의자의 주인인 지금 세대가 자신의 세대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를 어떤 자세로 영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던 자리를 어수선하게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떠난다. 그런 사람은 다음 사람을 올바르게 맞이하는 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또 그렇게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앞 사람에 대해 존경보다는 원망이나 경멸의 감정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보다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지금의 우리가 먼저 경건하고 정성스런 모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사실을 조병화의 「의자 7」은 평이한 언어로 훌륭하게 전달하고 있는 시이다. ㉠

우리 인간은 시작과 끝을 짐작하기 어려운 우주적 시간 안에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시간의 매듭을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고 미래의 시간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 꿈꾸는 동화, 빛이 노래하는 포천

선물이 되어 안기는 여행이 있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무언의 말이 되어 맺히는 시간이 있다. 찬 바람이 불어오는 2018년의 마지막 달, 젊은 날의 혈기를 잠재우고 중년의 산을 넘어서고 있는 벗들과 함께 포천으로 향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해한다는 말을 제때 전하지 못해 상처로 남은 순간들을 매만지기 위해 차에 오른다.



1



2

## 겨울의 빛 축제, 허브아일랜드

떨어지는 해를 따라 포천으로 달린다. 빛의 섬, 허브아일랜드로 들어가고 있다. 빛과 향의 조합이 선사할 저녁을 기대하며 묵은 이야기로 시간을 채운다. 날은 어두워지고 이야기는 깊이를 더해간다. 산으로 둘러싸인 굽은 길을 지나 산타가 손짓하는 허브아일랜드로 방향을 튼다. 경사진 길을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이 번져온다. 어둠 속에서 곱다시 불을 밝혀두고 여객을 기다리고 있는 허브아일랜드다. 검은 산중에서 만난 장관을 앞에 두고 연신 감탄이다. 휘황한 조명이 이렇게 눈을 사로잡는 걸 보니 밤 외출이 예상을 넘어선 멋들어진 선물을 주려나 보다. 매년 11월이면 새 단장을 하고 초대장을 보내오는 허브아일랜드 불빛 동화 축제는 올해로 십 회를 맞았다. 열 살된 빛의 섬이 여행객을 동화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알록달록한 조명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할 것 같은 건물과 여기저기서 번져오는 허브향. 풍동이 더없이 멋있었던 영화 라폰젤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 기분 좋은 걸음으로 허브아일랜드를 거닌다. 화려한 조명 때문인 걸까. 코끝은 찬데 가슴은 따뜻하다.

허브아일랜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전시관을 지나 향초 가게의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구경한다. 길목마다 빛이 일렁이고 곳곳에 향이 깃들었다. 향기에 취해 힐링 센터로 향하는 길, 할러윈 호박 앞에서 포즈를 잡기도 하고 신데렐라가 된 듯 호박 마차에도 올라보고 프랑스 마을에도 들어가 보며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는다.

### 1.2.3. 허브아일랜드 산타 마을



3

힐링 센터가 남긴 빛의 다독임을 곱씹으며 들어선 곳은 허브 식물 박물관이다. 노란 조명을 밝혀둔 박물관이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손을 이끈다. 향과 빛, 여객의 온기가 빚어내는 공기가 더없이 포근하다. 이 순간이 푸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밤의 여정을 함께 하는 벗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향기를 한껏 담고 들어선 곳에 빛을 머금은 산타 마을이 있다. 곳곳에 놓인 산타와 라벤더발을 메운 조명과 빛으로 만든 터널. 허공을 매우는 노래를 들으며 캐럴이 울려 퍼지는 계절이 왔음을 실감한다. 핑크빛 굴을 나와 12월에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하고 소원 종이에 소망을 적어본다. 아기자기하게 꾸민 집들을 따라 건다 들어선 곳에서 프랑스 상통 인형을 만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해 만든 프로방스산 인형이 소박한 경건함을 전해온다. 밤은 더 깊어 있고 빛에 잠긴 산타 마을은 성탄 선물이 되어 품에 안긴다. 긴 이야기가 이어지는 저녁을 또 하나의 선물로 간직하게 되리라.

**협곡과 절벽이 빛은 절경, 비둘기낭 폭포**

다음 여행지는 비둘기낭 폭포다. 집단으로 비둘기를 키우는 곳이라는 말에 한바탕 웃으며 차에서 내려선다. 풀 내음과 나무 내음이 섞여 코를 간질이고 들어온다.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비둘기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하여 비둘기낭 폭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곳은 현무암 협곡과 옥색 계곡, 색색의 나무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포천의 보고(寶庫)다. 절리와 동굴, 현무암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537호로 지정되어 있다. 멋들어진 풍경으로 '추노', '선덕여왕', '늑대소년' 등의 작품에도 등장한 것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기도 하다. 검푸른 동굴과 바다가 흰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과 뽀얀 물안개가 빚어내는 신비감에 젖어 폭포 앞에 섰다. 허브아일랜드와는 또 다른 빛이 가슴을 두드리고 들어온다. 바위와 물, 나무와 협곡이 만들어내는 이 오묘함은 자연의 손을 거쳐서야 완성되는 것이리라. 이 멋진 풍경을 거저 받은 여행객들이 할 수 있는 건 길동무와 손을 맞잡고 이 광경을 눈에 꼭꼭 눌러 담는 것뿐이리라.



5



4



6



3

- 4. 허브아일랜드 식물 박물관
- 5. 6. 비둘기낭 폭포
- 7. 산사원 정원 숲 향아리
- 8. 산사원 전통술 박물관
- 9. 한탄강 보행교 '하늘다리'



8

비둘기낭 폭포에서 십여 분 떨어진 곳에 한탄강 협곡을 가로질러 있는 보행교가 있다. 하늘다리로 불리는 다리가 중앙 바닥에 유리로 만든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여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아찔한 높이에 현기증이 인다. 주춤하며 물러서는 객꾼에게 길 친구가 말을 걸어온다. 두 눈 질끈 감고 발만 내디디면 아무것도 아니니 함께 가자는 소리가 귀를 지나간다. 교각만큼 흔들리는 두 다리를 끌고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가는 내 곁에 생의 난관을 무던하게 거처온 연륜 있는 벗들이 있다. 어깨를 내주고 손을 잡아주는 이들이 있어 인생은 살아봄 직한 게 아닐까. 흔들릴지언정 멈춰 서지는 않게 되는 게 아닐까. 유약한 나를 마주해 가며 이른 하늘다리의 끝, 어깨를 펴고 따뜻한 국물로 목을 축인다. 건너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했을 풍경이 눈앞에 있다.

**전통술과의 고즈넉한 만남, 산사원**

나란히 걸어 한차에 올라 도착한 마지막 종착지는 산사원이다. 어떤 달음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되기도 한다. 산사원 관장 배명호와 누룩 틀의 만남이 그렇다. 전통술 빚기를 배우고 있던 관장의 눈에 어느 날 문득 들어 온 낯은 누룩 틀. 이 만남은 훗날 '산사원 전통술 박물관' 건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2002년에 문을 연 산사원은 전시물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술을 공부하고 음미하며 덤으로 풍경까지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누룩 틀을 비롯한 주기(酒器)들과 고서적, 술잔과 술병, 소반까지 갖추고 있는 2층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 내려온다. 1층에는 시음장이 있다. 입장권을 끊고 받은 술잔을 들고 테이블로 향한다. 삼면을 둘러놓여 있는 술로 목을 적신다. 커피 술, 막걸리, 복분자주를 비롯한 수십 종의 술이 혀를 감미롭게 감싸온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벗들과 함께 기울이는 술잔이 더없이 가볍다. 이 나눔이 이 여행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한 것도 잠시, 수령 200년의 나무 두 그루와 500여 개의 술독이 늘어선 세월랑과 드넓은 정원에 가옥과 누각까지 갖춘 전시실 밖의 산사 정원이 여행의 방점을 찍어준다.

긴 길을 왔음에도 여전히 갈 길이 먼 벗들과의 동행이 남긴 여운이 깊다. 인생이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벗들과 푸른 정원을 거닐며 내일을 준비하는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는 소소한 여정일 것이다. 밤이면 빛과 향기로 어둠을 밝혀주고 낮이면 신묘한 색과 내음으로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던 포천이 남긴 두 자, 동행을 가슴에 새긴다. 2

NEWS BRIEFING

happyedu.moe.go.kr 2018.12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발표



교육부는 11월 16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고령화 사회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원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삶의 설계라는 전망을 가지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4개의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4개의 추진전략은 교육과정 속 진로교육을 확산과 진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확대,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맞춤형 진로를 위해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사회의 진로교육지원 역량 강화 등이다.

교육부, 충무교육원에 독도체험관 개관



교육부는 11월 20일(화)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교육원에 독도체험관을 개관하였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과 활동중심의 생생한 독도 교육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독도체험(전시)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충무교육원은 앞으로 '나라사랑 교육과 연계한 독도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현충사를 방문한 시민들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독도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 및 시민들이 독도를 지역문화공간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독도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6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교육부는 11월 3일(토) LG연암문화재단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6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학생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교육부·LG연암문화재단·한국외국어대학교가 체결한 이중언어교육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LG연암문화재단이 함께 처음으로 주최하는 대회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대표로 선발된 다문화학생 51명(초등부 28명, 중등부 23명)이 참여하여 각각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스리랑카어 등 11개 부모 모국어와 한국어로 발표했다. 심사를 거쳐 참가 학생에게 교육부 장관상 또는 특별상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이중언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교육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평화와 공존의 관점과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을 키우고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통일교육 관련 교과(목)별 성취기준 현황 분석 및 교육과정 정책연구를 통해 평화통일교육 체계로 재구성하고, 교과서의 서술 현황을 분석하여 평화·공존의 관점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통일 교실 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수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콘텐츠 발굴·확산을 위해 수업사례 공모 방식(bottom-up)으로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 웹툰 등 미디어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교원 집중연수를 통해 양성된 핵심교원으로 시·도교육청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컨설팅과 시·도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연수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도형학습 소프트웨어, 알지오메스 제작 보급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알지오메스(http://algeomath.kr)' 운영을 11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했다. '알지오메스'는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도형 학습용 소프트웨어로, 재미 있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주요 특징은 사용자가 입력한 수학식에 따라 그래프, 도형 등이 역동적으로 그려져 시각화를 지원하고, 알지오도형, 알지오문서, 알지오모둠으로 구성되어 사용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알지오메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총 125종에 이르는 학습자 중심 활용 콘텐츠를 제작·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41선 발표



교육부는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 창출된 성과물 6,500여 과제 중 공모와 추천방식으로 접수된 102건 후보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성과 41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은 1963년 학술연구조성사업으로 시작하여 학문 전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우수 연구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우수성과들은 각 분야별 학문 발전은 물론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향후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선정에서 우대받게 되며 사례집도 발간하여 전국 대학 등 연구기관에 배포한다.

###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시행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학교폭력 관련 문제는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에 감정적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 참고함으로써,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한다는 정책숙려제의 취지를 살릴 예정이다. 특히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제도에 대한 지적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회와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최종 정책방향은 교육부가 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설문조사 결과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권역별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는 특수학교 교실수업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2018학년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권역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특수학교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운영과 자유학년제로의 확대·발전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및 담당교원 등 총 600여 명이 권역별로 나누어 참여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올 한해 연구학교 등을 중심으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교과수업 및 자유학기 활동과 학생 평가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특수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과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특별 강연도 마련하여 교사들 간 공감·나눔·실천에 중점을 두었다.

### 실크로드에 부는 한국어와 한국학 열풍



교육부는 우즈베키스탄 국민교육부 산하 중앙연수원에서 우즈벡 한국어 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우즈벡 국민교육부 차관, 중앙연수원장을 비롯하여 한국어 채택학교 교장, 한국어 교사 등 우즈벡 교육 관계자 및 한국어 파견 교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해외 한국어 교사 파견 및 양성 지원사업'으로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중앙연수원이 함께 추진하여 파견 교사의 우수한 한국어 교수법과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우즈벡 한국어 교육 기반 구축 성과 발표, 한국어 파견교사 교육 활동 보고, 한국어 교사 수업대회 입상자 시상과 수업 시연, 한국어 교수법 향상을 위한 한국인 교사와 우즈벡 교사간의 매칭연수가 진행되었다. 2

11월호



## 명예기사의 까칠한 수다

### 교과서 자유발행제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두고 논의가 분분합니다. 유럽에서는 교과서의 발행과 채택에서 국가기구의 간섭과 통제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는 현행국·검인정제로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편찬의 자율성과 다양성 측면에서는 자유발행제 도입을 찬성하는 반면,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되는 우려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교육별전>의 뒷이야기를 명예기자들이 전합니다.

박기윤  
교사

지역 특색과 경제·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는 획일적인 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삶의 연계성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 경험이 없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팝아트를 주제로 토의하는 교과서 내용은 공감도 이해도 안 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합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실행된다면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으나 교과서가 다양하면 교과서 선정이나 시험문제 출제 등 교육 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 검·인정 교과서로 여러 검수를 거쳐서 발행하고 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 등은 교사가 다양한 자료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다룬 책들은 이미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조선영  
/ 안정미  
학부모

김민중  
/ 조원표  
교사

국정교과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다 반영할 수도 없고 뜯구름 같은 교재일 수 있습니다. 검·인정도 넓게 보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고 오히려 몇몇 대규모 출판사에만 유리한 구조입니다. 자유발행은 능력에 바탕을 둔 경쟁과 다양성의 반영으로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개별 자체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교사에게 최적화된 교재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자율성의 최소한의 뒷받침이 교과서 자유발행제이지요.

학생들은 점수에 민감합니다. 서로 다른 교과서 때문에 대학입시 등에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나온다면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면 자유발행제에 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가 드네요.

신재일  
학부모

문승욱  
교직원

자유발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고력과 창의성은 더 발휘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접근 방법을 배우는 아이들로선 좋은 경험과 토론장이 될 수 있기에 자유발행 교과서 수업이 기대되네요.

지금 교실은 교과서 하나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료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 IT기기 등이 활용되고 있지요. 교과서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다원화, 다양화 시대에 맞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현태  
교사

### 지난호 독자 리뷰

20년째 페이스페인팅 봉사지도와 학부모 민화교실을 통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윤수관 미술교사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봉사활동을 단순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미술교사의 재능기부와 노력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봉사활동까지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는 것이 뜻깊어 보였다. 학생들의 진로지도에서도 봉사활동의 경험은 큰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어 진로·인성교육 모두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 같다. 모니터단\_김경숙

모든 학생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기사 내용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시간에 해결하는 것이겠조'라는 부분에 나 자신이 잊고 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데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 부진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다른 물건을 깨내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든지 등 섬세하면서도 학습 부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좋았다. 모니터단\_양지원

### Event

12월호 <아하! 진로체험>을 읽고 '메이커'를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3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 지난호 당첨자

- 김미현 광주 북구 본촌마을길
- 지덕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 허요한 경기 포천 느릅실길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발행일 2018년 12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임창빈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교육연구사 정용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73

####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이대원 최원석  
 디자인 홍지화 홍수명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 “확 달라진 행복한 교육 웹진을 만나보세요”



- ✓ 업로드 기사를 디스플레이 규격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화면으로 즐겨요~
- ✓ 2003년부터 최근호까지 16년간의 '행복한 교육'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 ✓ 목차 보기 기능으로 기사 확인이 훨씬 쉬어졌어요~
- ✓ 통합 검색 서비스를 구축,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요~

<http://happyedu.moe.go.kr>

지금 바로 여기에서 확인하세요.